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응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티드 플레이스 네이션과
함께 아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대표전화 : (703)281-9660 koreadaily.com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478호

Thursday, January 29 2026 A

재무, 한국 관세인상 발표 “상황진전에 도움될 것”

CNBC인터뷰서 기대 파력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28일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베선트 장관과 사회자가 주고받은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그들은(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거

나 아니라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에서의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며 양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이후 관세 인상 조치를 실행할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의 “이사회 안에 인플레이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꽤 많다”며 “(연준 이사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나타날 상황을 열린 마음으로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달리화 약세에 대해선 “미국은 항상 강(強)달리 정책을 갖고 있다”며 “무역적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선트 장관은 유럽연합(EU)과 인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유럽이 매우 실망스럽다. 왜냐면 유럽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는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원유를 사기 시작했고, 그 원유를 정제한 제품을 누가 샀는지 아는가. 바로 유럽”이라며 “유럽은 자신들을 향한 전쟁에 자금을 대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주말 눈폭탄 ‘노리스터’ 발생 가능성

동부 해안을 따라 강력한 노리스터(Nor'easter)가 형성되면서 위험한 메트로 지역을 포함한 대서양 연안에 폭설과 강풍이 예상되고 있다.

기상전문가들은 이번 주말 교통혼잡과 정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노리스터는 대서양 해안가를 따라 형성되는 강력한 온대 저기압 폭풍(Bomb Cyclone)으로 북동풍의 강풍과 폭설, 해안침수 등을 유발한다.

노리스터는 주로 가을부터 다음해 봄 사이 반복하게 발생하는데, 겨울철에는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



2017년 1월 4일, 미 동부해안을 따라 움직이는 노리스터.

[출처: NASA/CIRA]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폭스뉴스는 모두 세 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최악의 경우 버지니아 남부부터 인터스테이트 95번 도로를 따라 메인 주 까지 10인치 안팎의 눈을 뿌릴 수 있다고 전했다. 노리스터의 영향권 안에 들면 하리케인과 유사한 한반도를 비롯한 폭설과 강풍, 해안 침수 및 홍수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예상된다.

기상전문가들은 노리스터의 경로를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오늘과 내일 즈음, 날씨에 관한 최신 경보와 주의보를 자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미 기자

트럼프-미니애폴리스 시장 '연방이민법 집행' 두고 공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콥 프레이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이 지역 경찰의 ‘연방 이민법 집행’ 여부를 두고 2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방을 벌였다.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종격에 의한 미국 시민 2명 사망 사건 등으로 반정부 시위가 격화한 이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속·진압 책임자를 교체하는 등 사태 수습을 시도하던 국면에서 양측이 다시 파열음을 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놀랍게도, 프레이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는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와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눈 이후의 일”이라고 적었다.

프레이 시장은 게시글에서 “나는 또한 (호먼과의 면담에서) 미니애폴리스가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집행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이웃과 거리의 안전을 지키는데 계속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적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의 측근 중 누군가가 이 발언이 매우 심각한 법 위반이며, 그(프레이)가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줄 수 있을까”라고 비난했다.

FIRST CO.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코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410-480-0083
원장 김동국 D.C.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코시티
410-480-2331
락 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선,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액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솔금 아기 물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센터빌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밍
구합니다.
410-988-5523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림.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571-564-3282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wp.,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이민단속에 한인도 ‘공포의 나날’

“아시안 얼굴 자체가 위험”
‘시민권자’ 입양인들도 위협 느껴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에 소속된 이민 단속 요원들의 무차별 단속으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주민들도 극심한 공포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는 아이작 리 목사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 28일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ICE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 쉼터 주차장에도 최소 두 번 차를 몰고 들어다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웃들이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비상용 가방을 쌌다는 사실을 들었으며, 자신들도 비상용 가방을 쌌다고 밝혔다.

ICE 단속이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줘 생계에 곤란을 겪는 이웃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한식료품점 주인은 지금 (이민 단속의) 영향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크다고 한다”며 “코로나 때는 매출이 10% 줄었는데 지금은 매출의 60%를 잃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회에 출석하는 가족들은 외출을 두려워해 한 달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도 증언했다.

어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그는 외출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위치 추적 기기를 숨겨놓는다면서 “4살짜리와 2살짜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호루라기를 불리고 가르쳐야 한다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지난 27일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이 가슴아프다”고慨탄했다.

이와 같은 위협은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고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입양인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었다.

입양인 출신인 킴 파크넬슨 위노나주립대 교수는 “인종 프로파일링을 주요 전술로 채택한 ICE가 이민자라고 생각할 인종적 특징이 있으면 누구나 잡아 적 표적이 된다”며 “지금 미니애폴리스에서 아시아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파크넬슨 교수는 입양인들이 미네소타 전체 한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들은 대부분 백인 가정에 입양된 탓에 다른 이민자 커뮤니티나 관련 정보에서 단절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입양인들은 법적 지위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서류가 누락된 경우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자신도 외출할 때면 ICE 활동이 보고된 위치를 먼저 확인하면서, 특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미국 여권을 행기고 전자 추적 장치를 숨긴 채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리 목사는 일부 입양인들은 예상과 달리 부모가 절차를 잘 몰라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했으며, 특히 이들은 자신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네소타주에는 한인 약 2만7천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만5천여 명은 입양인으로 추산되고 협의회는 전했다.

인구수 9만5천여 명으로 미네소타

최대 아시아계인 몽골도 ICE의 주요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세이 양 ‘트랜스포밍 제너레이션’ 대표는 “몽골 커뮤니티는 대규모 고용 주 단속이 아니라 개별 가정 방문 방식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며 “새벽이나 밤에 조용히 사리지는데 제대로 추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몽골은 과거 베트남전 때 미국을 도왔다, 미국이 패전한 이후 난민 신분을 인정받아 미국에 온 민족이다.

한영운 협의회 조직국장은 현재 미 상원에 계류 중인 국토안보부(DHS) 관련 예산안에 대해 반대투표를 촉구하는 상원의원 대상 전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장은 “한인인 앤디 김 상원의원은 DHS 예산이 포함된 모든 법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하원에서도 공화당 소속인 영 김 의원을 제외하고 메릴린 스트릭랜드·데이비드 민 의원 등 다른 한인 의원들은 관련 법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ICE와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이제는 영장 등 학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이들 책임자에 대한 탄핵 쟁취 활동도 전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민 단속 요원들은 우리가 한 국어를 쓰는지 중국어를 쓰는지 개의치 않고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이민자로 보인다”며 “한인 커뮤니티도 더는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지 말고 다른 커뮤니티와 연대해야 하며 입양인들도 우리 커뮤니티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사회보장 데이터 유출 인정

사회보장국(SSA) 데이터가 외부로 반출된 사실이 정부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16일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정부효율부(DOGE) 소속으로 SSA에 파견근무한 직원 2명이 SSA 고위 관계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보장 데이터를 외부로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DOGE 측의 부적절한 사회보장 데이터 취급을 공식 인정한 첫 사례다.

해당 문서는 지난해 DOGE의 SSA 데이터 접근 권한을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SSA 고위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했던 진술을 정정한 ‘정정 진술서’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실이 포함됐다.

문서에 따르면 DOGE 직원 1명은 SSA 데이터를 활용해 정치 운동 단체와 협력하며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찾거나 특정 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에 도움을 주기로 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해당 단체의 명칭과 표적으로 삼은 선거는 문서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SSA 데이터가 실제로 해당 단체에 전달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DOGE 직원들이 SSA의 공식 보안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제3자 서버인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 링크를 통해 사회보장 데이터를 반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법무부는 “클라우드플레어는 SSA가 데이터 저장을 허용한 플랫폼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방식은 SSA의 보안 규정을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점검 전까지 SSA는 DOGE 팀이 해당 서버를 사용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외부 서버 특성상 어떤 정보가 공유됐는지, 현재도 남아 있는지 확인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SSA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지낸 칼스 보르헤스는 내부고발을 통해 DOGE 직원들이 보안이 취약한 클라우드 서버에 사회보장 데이터 사본을 생성해 3억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경준 기자

“차 지붕에 쌍인 눈얼음 조심하세요!”

버지니아에서 주행중인 트럭에서 떨어진 눈얼음 덩어리에 맞아 뒤따르던 차량의 앞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운전자 러스티 호프 부부는 27일 오후 2시경 북버지니아 인터스테이트 66번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트럭에서 떨어진 눈얼음이 차량 전면을 강타해 앞유리가 파손됐다고 밝혔

다. 사고 순간 차량이 비틀거렸으나 다행히 다른 차량과의 추돌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프씨는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지만, 차량 위 눈과 얼음을 미리 제거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당시 트럭 번호판을 확인할 정신이 없어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접수 했다고 전했다.

당국에서는 겨울철 차량 상단에 쌍인 눈은 주행 중 균여 ‘얼음판’ 형태로 떨어질 수 있고, 햇빛에 노출되며 표면이 약해져 주행 중 갑자기 이탈해 뒤따르는 차량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작은 얼음 덩어리도 속도와 맞물려 치명적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발 전 차량



지붕과 보닛, 트렁크 등에 쌍인 눈과 얼음을 반드시 제거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 날씨 (°F)



1월 29일(목) 26-8

30일(금) 25-9	29일(월) 35-18
31일(토) 25-14	3일(화) 36-18
1일(일) 27-16	4일(수) 38-25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SALE 특집
교통 좋은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 홈 \$749,900
차고 2, 방 3, 화 3½

RENT 특집
기차역 가까운 매나세스
3층 End 타운 홈 \$2,900
차고 2, 방 3, 화 2½

Lender Licensed States (VA, MD, DC, NJ, GA, PA, TN, NC, AL, MI, FL, DE, WV, SC, CA)



대표전화:

703-204-0022 | 703-268-3954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30096

DE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MI Top 50 Mortgage Company

FL National Top 1%
2018년 ~ 2024년까지 7년 연속 수상

SC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GEORGIA
SEUNG YIO

CA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MARYLAND
SEUNG YIO

VA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VIRGINIA
SEUNG YIO

NC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NORTH CAROLINA
SEUNG YIO

AL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ALABAMA
SEUNG YIO

GA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GEORGIA
SEUNG YIO

DE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DELAWARE
SEUNG YIO

WV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WEST VIRGINIA
SEUNG YIO

SC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SOUTH CAROLINA
SEUNG YIO

CA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CALIFORNIA
SEUNG YIO

MI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MICHIGAN
SEUNG YIO

FL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FLORIDA
SEUNG YIO

DE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DELAWARE
SEUNG YIO

VA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VIRGINIA
SEUNG YIO

NC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NORTH CAROLINA
SEUNG YIO

AL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ALABAMA
SEUNG YIO

GA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GEORGIA
SEUNG YIO

DE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DELAWARE
SEUNG YIO

VA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VIRGINIA
SEUNG YIO

NC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NORTH CAROLINA
SEUNG YIO

AL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ALABAMA
SEUNG YIO

GA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GEORGIA
SEUNG YIO

DE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DELAWARE
SEUNG YIO

VA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VIRGINIA
SEUNG YIO

NC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NORTH CAROLINA
SEUNG YIO

AL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ALABAMA
SEUNG YIO

GA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GEORGIA
SEUNG YIO

DE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DELAWARE
SEUNG YIO

VA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VIRGINIA
SEUNG YIO

NC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NORTH CAROLINA
SEUNG YIO

AL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ALABAMA
SEUNG YIO

GA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GEORGIA
SEUNG YIO

DE National Top 1%
2024 TOP PURCHASE LOAN OFFICER IN DELAWARE<br

올해 세금 환급액 1000달러 증가 '희소식'

평균 4000달러 넘을 듯
백악관, 사상 최대 환불

신년 초 납세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
지고 있다.

28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평
균 세금 환급액은 약 1000달러 증가하
여 일반적인 지급액이 4000달러를 넘
어설 것으로 보인다.

연방 재무부는 2026년 세금 신고 시
즌에 무려 4290억 달러에 달하는 환
급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쩨 임기 핵심 세법 덕분에 지난해
3290억 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사상 최대 규모의 환불 시즌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
령의 획기적인 '근로가정 감세법' 덕분



에 수백만 명의 납세자들이 훨씬 더 많
은 세금 환급을 받게 될 전망"이라며,
이 법안은 의회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
이 반대했던 법안이라고 밝혔는데 '하
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가정의 3분의 2 이상이 평
균 3167달러의 환급금을 받았다.

이번에 모든 납세자가 환급금을 받
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의 약 60% 정
도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세재단에 따르면 주 및 지방세
(SALT) 공제 한도를 4만 달러로 인상
한 것이 개인 소득세 감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가장 큰 원동력은 새로
운 초과 균무 공제인 데, 이는 2025년
개인 소득세 감면액 1290억 달러 중 약
30%에 해당하는 387억 달러를 차지한
다.

그 외에도 확대된 표준 공제, 새로운
고령자 보너스 공제, 높아진 자녀 세액
공제, 그리고 텁과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등도 소득 증가에 한 몫을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
가 노동자 계층들을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정책을 시행하여 전국 모
든 주와 카운티에서 세금을 인하했다"
고 강조했다.

김성한 기자

버지니아 레스턴협회 채용박람회 개최

버지니아주 레스턴협회(Reston
Association)가 여름철을 대비해 구직
자들을 위한 '계절별 채용 박람회'를
오는 2월 28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레스턴
협회(2001 Sunrise Valley Drive)에서 열리는
박람회에서는 수영장, 캠핑,
시설 관리, 테니스, 회원 서비스 등 다양
한 분야의 임시직 채용 기회가 마련
된다.

계절별 직무는 '첫 직장을 찾는 10대'
를 비롯해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온
대학생, 그리고 은퇴자 또는 파트타임
근무를 원하는 성인 등이 포함돼 한인
들에게도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레스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4
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
며, 채용 기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reston.org/careers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문의 사항은 Devon
Mangual(dmangual@reston.org)에
게 하면 된다.

김성한 기자

'아마존 프레시' 전국 모든 매장 문닫는다

2월 1일자로 영업 종료
일부 훌푸드로 전환 예정



아마존은 27일 '아마존 프레시' 사업을
접고 훌푸드 마켓 등 다른 브랜드에 집
중하기 위해 버지니아를 비롯해 전국의
모든 매장을 오는 2월 1일부로 폐쇄
한다고 발표했다.

아마존은 여러 매장을 개조하여 훌
푸드 마켓으로 재개장할 계획이지만,
어떤 매장이 전환될지, 정확한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버지니아 페어팩스 시티에 있던 아마존 프레시
매장 건물 전경.

밝혔다. 아마존 프레시는 2021년 5월
프랭코니아의 맨체스터 레이크스 쇼핑

센터에 첫 매장을 열면서 워싱턴 지역
에 진출했다. 이후 페어팩스 시티, 베일
리스 크로스로드, 로턴 지역으로 확장
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아마존은 전국에 총 57개의 아마존
프레시 매장과 15개의 아마존 고 매장
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매장을 또한 2
월 1일 이후 문을 닫을 예정이다.

아마존 브랜드 오프라인 식료품점에
서 고무적인 신호를 보았지만, 대규모
확장에 필요한 적절한 경제 모델을 갖
춘 진전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아
직 구축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2017년

훌푸드 마켓을 인수한 아마존은 그동
안 40% 이상 성장했고, 매장 수도 550
개 이상으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 동안 100개 이상의 새로운 훌푸
드 마켓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아마존 온라인 식료품 소매업체는
현재 미주 내 5000개 도시와 마을에 식
료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 지역은 당일 배송을 하고
있다. 한편, 아마존은 신선 식품, 생활
필수품, 일반 상품 등 다양한 제품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신개념 슈퍼
센터' 형태의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개점 시기와 지역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성한 기자

메트로시티은행, 설날 해외 송금 수수료 면제

2월 11일~13일까지, 1000달러 한도

한인이 운영하는 메트로시티은행이
한민족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아 한국
을 비롯한 해외 송금 수수료 면제 행
사를 실시한다. 설 명절 기간 고객들의 송
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이번 해외 무료 송금은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데, 대상은 개
인 책킹 구좌를 보유한 고객으로, 개인
용도의 송금에 한해 혜택이 주어진다.

1000달러까지 무료로 송금이 가능
한 데,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해외로
송금을 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며, 한
도를 초과하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메트로시티은행 애나데일점 주소는
7023 Little River Turnpike, Suite 101,
Annandale, VA.이고, 전화는 571-
335-7163이다.

김성한 기자



정원호 목사 초청 신년 목회자 세미나

워싱턴 목회연구원(원장 윤구현 목사)은 지난 19
일부터 21일까지 워리엄스버그에서 정원호 목사
를 초청해 '세속사회에서의 복음과 윤리·돈·성
정치'를 주제로 신년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다.
3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속적 가치관 속에
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복음적 삶을 실천하
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김윤미 기자

**1985
오직 옴니!**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보험에 관한 옳은 선택 - 윤니파이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 죄신형 의료시설 완비
2 죄신형 X-Ray 완비
3 교정 및 물리치료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나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나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황·뜸
한약 (치료제, 보약)
원장 채여혜
- 복경증의대증 증의과 풀업
- 중국증의대증 증의과 풀업
- 상해증의대증 증의과 풀업
- 양성증증 증의과 풀업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http://chaiorientalmedicine.clinic/

REALTYONE GROUP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koriny

승경호 부동산

사업체 & 상가 매물 안내

세차장 사업
메릴랜드/ 버지니아 주
구입하거나 매물 주시면 구입/매매 해드립니다
문의 환영합니다.

베데스타 샌드위치 샵
임대료 월\$5600, 가게 위치좋고 이답니다

고급 사무실 임대
창고 자리 전문 | 식당/ 리테일 자리 전문

투자용 상가 건물
매매가: \$8,000,000 · 연 순수익: \$520,000 (Cap Rate 약 6.5%)
임차인: 총 7개, 모두 5년 이상 장기 계약 중

비엔나 NEW 상글
\$2,680,000
방 6, 화 5.5, 4218 SqFt.
아주 좋은 위치, 메디슨 학군

비엔나 NEW 상글
\$2,799,888
방 6, 화 5.5, 5133 SqFt.
비엔나 ES, 모던 럭셔리, 아주 좋은 위치

비엔나 NEW 상글
\$2,249,900
방 7, 화 7.5, 4425 SqFt. 2026 가을 입주
메인밸리 풀베쓰와 방이있는 밝은 집, 메디슨 학군

비엔나 NEW 상글
\$2,499,900
방 7, 화 7.5, 5324 SqFt. 2026 가을 입주
수영장과 아웃도어를 위한 자리, 메디슨 학군

비엔나 NEW 상글
\$2,649,000
방 6, 화 6.5, 4791 SqFt. 꼭 보셔야 할 집
완벽한 위치에 오픈 컨셉 디자인, 백아트 풀 가능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ONE GROUP CAPITAL

929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www.dwellwashington.com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이러다 LA도 미니애플리스처럼 될라”

LA한인타운 등 단속 계속
돼 ICE 정보 SNS 실시간 공유
한인 단체들도 핫라인 운영

연방 요원들이 LA 한인타운 등 이민자 밀집 지역을 들며 불법 체류자 단속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최근 미니애플리스에서 잇따라 발생한 연방 요원 총격에 의한 시민권자 사망 사건과 맞물려 LA가 ‘제2의 미니애플리스’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LA한인타운 한 세차장 직원은 “26 일 표식 없는 SUV 한 대가 세차장 길목에 한참을 멈춰 섰고, 이를 본 히스페닉 직원들이 모두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다”며 “ICE 요원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분위기여서 너무 무섭다”고 전했다.

실제 27일 오전 10시 4분쯤 린우드 지역 애틀랜틱 애비뉴와 맥밀란 스트리트의 한 주택 앞에서도 표식 없는



시민감시네트워크 '@sc_communityalerts'의 인스타그램은 연방요원들의 활동을 감시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SUV를 타고 나타난 연방 요원들이 불시에 단속 작전을 벌였다.

남가주 지역 주요 매체들도 남가주 지역에서 진행 중인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ICE는 사이프리스 파크에서 한 노점상을 연행했고, 같은 날 하이랜드 파크의 한 학교 앞에서도 성인 남성 1명을 체포했다. 링컨 하이츠에서는 연방 요원들이 노점 앞에서 단속 작

전을 벌이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 달아나기도 했다.

주민들과 민권 단체들은 연방 요원의 발포 등 공권력 남용을 우려하며 정보 공유에 나서고 있다.

인스타그램 남가주 커뮤니티 경보(@sc_communityalerts)에는 2만 8000명이 가입돼 있다. 이 계정에는 연방 요원들의 단속 작전이 진행된 날짜, 시간, 장소, 사진, 영상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스톱ICE 계정(@stopicenet)에도 가입자 12만 5000명이 남가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벌어지는 현장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 피플오버페이(iceout.org)는 온라인 지도를 활용해 단속 현황을 알리고 있다. LA 자바시장 한인 업주와 직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연방 요원의 단속 정보 공유가 이어지고 있다.

토론페스에서 물류업체를 운영 중인 김영석 대표는 “지금 ICE 단속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에서 이러다 LA에서도 미니애플리스처럼 안 좋은 일이 일어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불법 단속으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돼 비즈니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몬로비아 지역 흄디포 입구 잔디밭과 210번 프리웨이 출구 등에는 연방 당국에 체포돼 연행되거나 사망한 일 용직 불법 체류자를 기리는 추모 공간도 마련돼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연방 당국의 단속 강화 기조 속에서 한인들을 위한 핫라인(1-844-500-3222)과 스마트폰 앱(Know Your Rights 4 Immigran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7월 이후 연방 요원들이 체포 작전 과정에서 종을 발사하거나 시위 참가자에게 발포한 사례 등 총 16차례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이로 인해 시민 4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이 총에 맞았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WP는 전했다).

김형재 기자

이민비자 중단의 역설…취업이민엔 호재

75개국 비자 발급 중단에 영주권 쿼터 잔여분 이월

연방정부가 최근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해당 국가 출신이 아닌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용되지 않은 가족이민 영주권 쿼터가 취업이민 쿼터로 이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청자들은 가족이민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연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가족이민 영주권이 법률에 따라 취업이민 카테고리로 이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

민비자 발급이 중단된 국가들에서 발생한 가족이민 영주권 미사용분이 취업이민 쿼터로 이전될 경우 다음 회계 연도 기준 약 5만 개의 취업이민 영주권이 추가로 배정될 수 있다.

이민비자는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핵심 절차로 꼽힌다. 비자 발급이 중단될 경우 사실상 75개국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가족이민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연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가족이민 영주권이 법률에 따라 취업이민 카테고리로 이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무부는 소셜미디어 엑스(X)

를 통해 “복지 혜택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이민자가 다수 포함된 75개국 국민에 대해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무부는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공적 부담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민비자에 한해 적용되며, 관광·상용 비자 등 비이민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말리아, 이란, 아이티, 콜롬비아, 쿠바, 브라질, 러시아 등이 대상국에 포함됐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실제로 팬데믹 사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전 세계 재외공관의 업

무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대규모 가족 이민비자가 미사용 상태로 남은 바 있다”며 “이 물량은 이후 취업이민 시스템으로 이월됐고, 당시 임시 취업비자로 체류 중이던 신청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늘어날 수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은 특히 영주권 신청 자체가 심한 인도 출신 신청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별 상한선인 7% 규정은 유지되지만, 이 비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전체 취업이민 영주권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실제로 팬데믹 사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전 세계 재외공관의 업

역시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김경준 기자

예일대, 소득 20만불 이하 등록금 면제

을 가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10만불 이하면 학비 전액 지원

예일대학이 학부생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 학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면제 한다.

예일대는 27일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재정 지원 확대 방침을 공개했으며, 올

가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가구의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금은 물론 기숙사비와 식비, 여행비, 보험 등 모든 학업 관련 비용을 포함한 전액 장학금이 지원된다.

대학 측은 이번 조치로 중산층 가정을 포함한 더 많은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일대는 지난 2010년부터 ‘부모 부담 제로(zero parent share)’로 불리는 필요 기반 재정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 식비 등 모든 교육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에는 교통비와 건강보험료, 2000달러의 초기 생활 지원금도 포함된다.

송윤서 기자

복권 분실로 1억9700만불 날려

동일 메가밀리언 2장 구매 1장 잃어 버려 절반만 받아

LA의 한 남성이 총 3억9400만 달러에 달하는 당첨 복권 2장을 구매하고도 이 중 한장을 분실해 거액의 당첨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는 분실한 복권에 해당하는 1억 9700만 달러의 당첨금을 받기 위해 가

주복권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6일 온라인 매체 패치(Patch)에 따르면 파라마르즈 라하자니는 2023년 12월 LA 엔시노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메가밀리언 복권 2장을 같은 번호로 구매했다. 당시 1등 잭팟 당첨금은 총 3억9400만 달러였다. 당첨 번호는 21-26-53-66-70번이며 메가볼 번호는 130이었다.

송윤서 기자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유튜브 워싱톤 미주방송

**영원한 소장품 음악 CD,
TV 연속극 450개 (CD) 판매**

음악 CD 1장 \$7 (현재 CD 수천장 보유)

문의 (202) 957-1200

7004-K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책상(소형) 3개 매매 ●소형 사무실 렌트

“꿈 펴고 싶어도 미국 남을 길 못찾아”

이민 문호 축소로 상황 급변
학생 비자 40%까지 거부돼
기업들은 영주권자만 채용

미국 땅을 밟는 순간 ‘아메리칸 드림’은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꿈이었다.

유학생 출신 이정길(27·가명)씨도 마찬가지였다. LA 지역 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이씨는 금융 애널리스트가 돼 월스트리트를 누비는 자신의 모습을 늘 상상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졸업 후 미국에 남아 커리어를 쌓으려 했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이후 비자 규정이 강화되면서 환경이 급격히 경직됐다는 점이다.

이씨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만난 기업들은 하나같이 영주권자만 채용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상황이 이렇게 급변할 줄 몰랐고, 더는 선택지가 없었기에 미국에서 그리던 꿈을 접어야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및 이민법 강화 기조로 지난 1년 사이 수많은 이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끝나버렸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을 떠난 불법체류자는 약 300만 명에 달한다.



지난해 5월 졸업을 앞둔 USC 학부생들이 캠퍼스 광장에 있는 학교 상징물 ‘트래블러’ 조각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근업체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한인타운노동연대(KIWA) 윤대중 커뮤니티 연대 디렉터는 “이민자 가정들이 공포에 휩싸여 직장을 물론 공원이나 외출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민 정책의 변화는 이제 막 아메리칸 드립을 꿈꾸는 젊은 세대에게 특히 치명적이다. 취업비자(H-1B)는 고임금·고숙련자 위주로 재편되며 문턱이 더 높아졌고, 연봉 10만 달러를 받아도 탈락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그동안 많은 유학생들이 취업비자를 거쳐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통해 미국에 정착해왔지만, 그 길 자체가 급속히 좁아지고 있는 셈이다.

김선민 다트마스대 사회학 교수는 “1990년대 이후 한인들은 학생 신분을 거쳐 미국에 정착해왔다”며 “그러나 지금 졸업하는 세대는 현실적으로 미국에 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공회 어번대학 간호학 교수도 “일단 가서 부딪혀 보자”는 낙관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꿈이 아니다. 기회는 사라지고, 남고자 했던 젊은 이들은 조용히 짐을 싸고 있다.

강한길 기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이 가운데 한인을 약 2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학생 비자 거부율도 급등 했다.

미교협에 따르면 최근 학생 비자 거부율이 40%까지 높아지면서 한국인 유학생 비자 신청 4만여 건 중 약 1만 3000건이 반려됐다.

한국운 미교협 조직국장은 “정상 체류 중이던 F-1 유학생들이 SEVIS 취소 통보를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급기야 귀화 시민권 심사 강화와 박탈 검토 확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의

이웃 조사, 공적 부조 수혜 여부 문제 제기 등 과거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기준들도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한 국장은 “경찰이 티켓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처럼, 이민 당국 역시 심사관 개인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민국 심사 과정에는 실수와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한인 상권과 노동 현장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일례로 자바시장은 수십 년간 한인 이민 세대들이 아메리칸 드립을 꿈꾸며 생계를 이어왔던 공간이다. 패션 디스트리트의 경우 대낮에도 문을 걸어 잠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면 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자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한미 무역 협의가

이민단속 또 총격 애리조나 국경서 1명 중태

애리조나주 국경 지대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NBC 방송과 지역방송 KVOA의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애리조나주의 남부 국경 지대인 피마 카운티에서 사람 1명이 총격을 받아 중태에 빠졌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 대변인은 이 총격에 국경수비대가 연루돼 있다고 밝혔다.

부상자의 신원과 사건 발생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상자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받은 뒤 의료 헬기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현장에는 국경순찰대원들이 있었다고 KVOA는 전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과 연방수사국(FBI)은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번 총격 사건은 지난 24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국경수비대 요원이 30대 미국인 알렉스 프레티를 사살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지난 7일 이민 세관단속국(ICE) 요원이 30대 미국인 여성 르네 굿을 사살한 지 약 3주 만에 발생했다.

프레티와 굿의 사망은 격렬한 시위를 촉발했으며, 국토안보부(DHS)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LA시 세수 확보안 의회 통과

LA시의회에서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한 호텔세(TOT) 인상안과 무허가 마리화나 업소 과세안이 27일 통과됐다. 통과된 안건들은 오는 6월 예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우선 시의회를 통과한 호텔세 인상안은 호텔·모텔 객실, 단기 임대 숙소, 호스텔 등 숙박 공간 이용에 부과되는 세금을 현행 종액의 14%에서 16%로 냉한 조치로, 시행 시 호텔세는 18%로 올라 약 89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한 시적으로 2%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27년 수퍼볼과 2028년 올림픽 개최로 인한 관광 수요 증가를 겨냥한 조치로, 시행 시 호텔세는 18%로 올라 약 89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의회를 통과한 ‘마리화나 업소 평평성 과세안’은 무허가 업소에도 허가 업소와 동일한 세금 책임을 부과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LA시 재무국은 이를 통해 무허가

업소에 대한 과세 집행이 가능해져 연간 약 7000만 달러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차 점유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예산·재정위원회로 회부했다. 주차 점유세는 주거지 내 주차와 길거리 주차를 제외한 유료 주차에 부과되며, 현재 세율은 10%다.

당국은 이를 15%로 인상할 경우 연간 약 6700만 달러의 세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LA시는 대형 행사세, 공유 차량세, 공실세, 소매 배송 수수료 등 추가 세금안도 검토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

트럼프 “관세, 한국과 해결책 마련”

25%로 재인상 하루만에 선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자신이 전날 밝힌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이오와 일정을 위해 출발하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같이 밝혔다.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관세 인상을 철회 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구독신청 703-281-9660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경!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풍자와 절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는
풍자와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상업용자·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701 Pender Dr. #16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이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기능·무이자 할부 가능 (K- 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퀄리티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국조 물)

훼밀리노리에

Pine Orchard Ln

40

300m

뉴타운총

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중·일엔 “환율조작” 약달러엔 “훌륭”… 트럼프식 내로남불

달리인덱스 4년 만에 최저 수준

트럼프 “난 달러값 움직일 수 있어” 미수출·재정적자 해소에 도움 판단 전문가 “중간선 거 앞두고 경기부양” 원환율 1422.5원, 석달 만에 최저

미국 달러 가치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두고 “아주 좋다 (it's great)”고 말하며 하락세에 기름을 부었다. 다른 나라에는 환율 조작을 하지 말라고 압박하면서도, 정작 달러값 추락을 부추기는 트럼프의 이중적 행보에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졌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리인덱스(DXY)는 전날보다 1.3% 급락한 95.76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초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4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이 기간 내린 달러값은 2.6%에 이른다.

달러값을 주저앉힌 직접적 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날 그는 최근의 달러 약세에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며 “달러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달러를 요요처럼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 수 있다”며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중국과 일본은 위안화와 엔화를 계속해서 낮추려 했고,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도 했다.

시장은 이를 두고 제조업과 수출에 유리한 달러 약세를 감내하거나 선호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트럼프는 지난해 ‘관세 전쟁’을 치를 때도 “강한 달러를 좋아하지만, 약한 달러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실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 달러 가치는 약 10% 하락했다. WSJ에 따르면, 달러 대비 유

로화는 트럼프 취임 이후 달러 대비 약 16% 상승했고, 스위스 프랑과 멕시코 폐소는 각각 19% 이상 올랐다.

시장 전망은 달러 추가 약세 쪽에 기운다. 그린란드 매입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미 국채 보유 비중을 줄이려는 조짐이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을 흔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 압박과 더불어 차기 Fed 의장 선임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달리인환율에 대한 ‘레이트 체크’(시세 확인)를 했다. 현재 엔화 가치가 적정한지 점검을 해봤다는 건데, 미 정부가 달러 대비 엔화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프라산트 뉴나하 TD증권 아시아·태평양 금리 수석 전략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기를 과열시키고,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Fed보다 한발 앞서기 위해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사실상 달러 매도에 녹색불(허용)을 켜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의 불안감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달러 약세가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수출과 재정적자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를 불러올 요인이라서다.

미미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면서 금과 은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바클레이즈의 수석 외환 전략가 레프테리스 파르마키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질서가 흔들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달러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달러 가치가 추락하면서 원화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 이날 주간 종가 기준 달러·원 환율은 하루 전보다 23.7원 내린(원화 가치는 상승) 1422.5원이었다. 지난 10월 20일 이후 가장 낮은 환율이다. 박유미 기자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뉴욕 맨해튼의 힐튼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위에 기름 부은 이민단속, 사흘 만에 또 시민에 총격

애리조나서 30대 총 맞아 중태

미 민주당, 국토장관 해임 요구

미국 애리조나주 국경 지대에서 시민이 국경 단속 요원의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27일(현지시간) 오전 7시30분쯤 애리조나 남부 국경 지대인 피마 카운티에서 일어났다. 미국인 패트릭 게리 술레겔(34)이 국경순찰대(USBP)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현지 보안관에 따르면 인신매매 용의자를 쫓던 요원들이 의심스러운 트럭을 세우려고 시도했다. 운전자

술레겔이 차에서 내려 총격전을 벌이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요원들의 총에 맞았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술레겔은 중태였다. 하지만 수술 후 안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과 24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인 브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가 단속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총격 사건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할 경우 탄핵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프레티가 연방

요원을 학살하려 했다는 당국 발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자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 등 관련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이후 국토안보부의 대대적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에게 총을 발사한 사례는 총 16번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시민 4명을 포함한 최소 10명이 요원의 총에 맞았다. 이 가운데 3명은 숨졌다. 하지만 총을 발사한 요원 중 혐의 기소되거나 징계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강태화 기자

러, 우크라 여객열차 연속 타격…민간인 사상자 속출

러시아가 종전 협상 국면에서도 고강도 공세를 이어가면서 어린이·임산부를 불문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공포를 극대화 해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국제법을 무시한 ‘비인도적인 테러’라는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밤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 지역을 지나던 여객 열차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

지역 당국에 따르면 3대의 드론이 객차 2량 이상을 타격하면서 4명이 사망하고 2명 이상이 다쳤다. 열차에 있던 200명 이상의 승객은 모두 대피했다.

러시아는 전날에도 하르키우 지역을 지나는 여객열차를 공격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 열차에는 291명의 민간인 이 타고 있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SNS에 불길에 휩싸인 열차 영상을 올리고 “민간인 열차 공격은 여지없는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유럽·미국·중동·중국에서도 이런 공격이 테러라는 지적에 의문은 없을 것”이라며 “객차 안의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은 어떠한 군사적 정당성도 없다”고 비난 했다.

마·러·우크라이나의 3자회담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러시아의 조준경은 여전히 민간인을 향하고 있다.

수도 키이우도 전날 러시아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아이를 돌보던 부부가 모두 사망했고 네 살 딸만 살아남았다.

또 다른 아이 1명을 포함해 3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17층짜리 주거 건물은 포탄에 맞아 지붕이 훼손됐고 창문들이 모두 부서졌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도 이틀째 계속된 공격으로 항만 인프라 시설이 파괴되고 3명이 다쳤다. 전날 러시아 공격으로 민간인 3명이 사망하고 어린이·임산부 등 23명이 다친 뒤 불과 수 시간만이다. 자포리자·크리비리흐 등 다른 남부 지역에도 러시아 포탄이 떨어져 아파트 건물 14채가 파손되고 8명이 다쳤다.

중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도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아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1명은 중태다. 러시아 포격을 받은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도 민간인 사망자가 보고됐다.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집중 타격도 계속되면서 아직 71만명의 시민이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 / 척추신경 / 손 / 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복/무릎통증/자주빼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산부/신부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One's Lab at UMC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 / 챔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OUR LOWEST PRICE!

JAN. 29TH - FEB. 5TH, 2026



K-TOWN BAKESHOP
CACAO PIE

LIMIT 4

케이타운
미니 카카오파이

MASCARPONE CHEESE/
COOKIES & CREAM - 6.77 OZ/PKG

\$2.49

Querencia.
— — — — —



QUERENCIA KITCHEN
CLEASNING WIPES

LIMIT 5

케렌시아
매일 클린행주

80 SHEETS X 4 PKG/SET

\$5.4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ELLI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ICOTT CITY, MD 21043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했다”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있다. 3대 의혹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만이 유죄로 인정됐다.

[중앙지법 영상 캡처]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샤넬백·목걸이 유죄,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전직 대통령 부부 첫 동반 실형

도이치모터스·통일교·명태균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3대 의혹 중 통일교 측에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만이 유죄가 인정됐다. 김 여사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반 실형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됐다. 반면에 특검 구형량인 15년형의 10분의 1 수준의 선고 형량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체포방해·징역 5년), 한덕수 전 총리(징역 23년) 등 중형을 선고한 최근 법원 추세에서 “예상을 깨 판결”이란 반응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 여사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과 함께 1281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는 물

수했다. 우부장판사는 “김 여사는 영부인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해 치장에만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직접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일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짚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앞서 검찰이 4년6개월간 수사 끝에 2024년 10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뒤 ‘봐주기 논란’ 끝에 특검법이 통과되는 등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발단으로 꼽히는 사건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더라도 시세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

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블랙밸 인베스트먼트 측과 수익금 정산 때 작전세력의 일방적인 블록딜 매각에 항의하는 등 “공모관계 밖의 외부자”라고 하면서다. 또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난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일부 기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선 면소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방조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기소하지 않아 공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사건 주범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주 손모씨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에 특검이 김 여사를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남편인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대 대선 때인 2021~202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

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준 게 아니라 명씨가 원래 정기적으로 하던 여론조사를 여러 사람에게 영업을 위해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것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사건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과 직결된다.

또 명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받고 측근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단 근

거로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목적 계약을 체결한 증거도 없다”며 “여론조사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2점과 그라프 목걸이 1점 등 8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2022년 7월 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 1점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만 청탁의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로 봤다. 2022년 4월 받은 802만원 상당의 샤넬백 수수 때는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 통화 내용 등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언급하면서 헌법 103조(법관의 양심)에 의거해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특검팀은 이날 1심 선고가 구형량인 징역 15년과 별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에 크게 못 미치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입장문에서 “무죄 부분 관련 법원의 주가조작 공동정범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을 법리적·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의 양형 판단도 매우 미흡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 주가조작 방조 혐의의 경우 축소 사실이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비겁하게 보류했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는 판결 이후 남부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오늘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겪어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보름·조수빈 기자

‘김건희 실형’ 우인성 판사, 법정서 샤넬백 직접 검증

증거 판단 엄격, 형사 전문가 꼽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 형을 선고한 우인성(사진) 부장판사는 지난 5개 월간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재판을 진행했다. 여론의 이목을 집중받는 스타 판사는 아니지만 그간 범조계에선 ‘치우치지 않는 판사’라는 평을 들어왔다.

우부장판사는 청주 충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창원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201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고,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 재판장으로 보임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엔 ‘형사 심층조’에서 근무하고, 현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회장을 맡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형사 전문가로 꼽힌다.

성격은 차분하고 조용하다고 한다. 우부장판사는 잘 아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우부장은 재판에서 현출된 증거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며 “정치적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엄격하게 증거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게 예측되는 판사”라고 했다. 또 김 여사가 통일교에서 받은 의혹이 제기된 샤넬 가방 3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법정에서 직접 검증하는 꼼꼼함도 보였다. 우부장판사는 흰 면장갑을 끼고 가방 내부를 열어 사용 흔적을 살피고, 후대전화로 직

접 사진을 활용했다. 가방 외부 버클도 일일이 확인하며 “흰색 가방은 바깥 버클에 비닐이 없고 약간 긁힌 것 같은 사용감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우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김 여사의 퇴장을 요청하자, 퇴장 대신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 누워 재판을 듣도록 하는 배려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이례적인 대우는 아니라고 한다.

조수빈 기자

백성호 CPA, MBA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리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 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백성호 공인회계사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 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纨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1. 센티벌 타운	\$650,000	Under Contract
방3, 학2.5, 치고1 RT 28, 66 교통편리, 전부 업그레이드		
2. 애쉬번 타운	SOLD \$660,000	
방 4, 학 3.5, 치고2, 최고 학군, RT 267/7, 덜러스 공항, 전부 리모델링, 새집 같음		
3. 백클린 콘도	\$389,000	Under Contract
방2, 학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4. 스텔링 타운	SOLD \$645,000	
2014년, 방3, 학2.5, 치고2, RT 50/606, Dulles Airport, RT28		
5.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렉서리 싱글		
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히 도와드립니다!		Sold
1.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치고2 2. 매니시스 2025 새집 \$670,000 방4, 치고2, 2400sqft, 치고2 3. Bristow 55+ single \$750,000 방4, 치고2		
7. 우드브리지 싱글	SOLD \$649,000	
1997년, 방4, 학3.5 치고1, 뒷숲, 최고 학군, 전부 리모델링 포토맥 블루 RT 95, RT1, RT234, 디씨출근 편리		
8.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속도, 6,700sqft, 방5, 치고2, 치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창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니아룸, 케임룸, 바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9. 알디 싱글	\$869,000	
Under Contract		
2004년, 방4, 학2.5, 치고2, 전체마루, 굿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통 한식



한식의 품격

4명의 셰프가 빚어낸
정통의 맛을 전합니다.

깊이 있는 정통 한식의 맛!!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혜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월, 화, 목, 일
수요일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
정기 휴무 / CLOSED
오전 11시 ~ 오후 11시

즉석 칼국수 신메뉴 출시!

Weekly Special

따뜻한 즉석 칼국수와 깊은 맛의 닭볶음탕
런치 뷔페에서 만나요.~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구 인

홀 서버 (Hall Server)

WSJ “김민석 만난 밴스, 미 기업 불이익 땐 관세 인상 경고”

〈미 부통령〉

관세 인상 배경, 말 다른 한·미

“쿠팡 등 한국 정부 대응 완화 주문”
외교부 “차별 자체 경고 사실 아냐”
김총리, 방미 때 국무부 경호 못 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대(對)한국 관세 원상복구’ 선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미국 테크기업 규제 움직임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원인일 수 있다는 관측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 이해의 근거가 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았지만, 이면에는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대우 논란과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관측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와 조사에 대해 한국에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J D 밴스 부통령은 지난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쿠팡을 비롯한 미국 테크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쿠팡과 같은 테크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서 의미 있는 완화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한다. 특히 “밴스 부통령이 명시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아이오와주 방문을 위해 전용 헬기에 오르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관세 인상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 사진은 23일 J D 밴스 부통령(오른쪽)을 접견한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 총리실, 로이터=연합뉴스]

치가 지속될 경우 한·미 무역 합의가 흔들리고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김총리는 지난 23일 부통령 회담 직후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물어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설명했다. 부통령은 이해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부통령이 풀었던 의문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결과가 26일 트럼프 대통령



의 ‘관세 원상복구’ 선언으로 이어졌다 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김총리는 정확한 상황을 공유하고 (쿠팡에) 차별적 대우가 아님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부통령이 쿠팡에 대해 차별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김총리의 방미 기간 미 측이 주요 외빈을 보호하는 국무부의 외교경호실(DSS) 경호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

도 파악됐다. 28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총리는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DSS 요원들이 김총리를 경호하지 않았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미 측은 통상 DSS 경호는 외교장관에게 제공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타국 정상에게는 미 대통령을 경호하는 백악관 비밀경호국(SS)의 경호가 제공되지만, 김총리는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SS 요원 경호도 없었다는 것이다.

국무부 조직 DSS는 국무부 고위 관료 등 외교 요인과 자산, 정보 보호가 주된 임무다. 통상 한국 외교장관의 방미 시 DSS 요원들이 근접 경호를 맡는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의전이나 경호에서 어떤 불편함도 없었다. 각별한 의전과 특별한 배려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외교장관에게도 제공하는 경호를 총리에게 제공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다. 한국 국무총리의 단독 방미 전례가 거의 없어서일 수도 있다. 다만 미 국무부는 DSS 요원의 국내 임무에 대해 ‘국무장관 및 방미하는 외국의 고위 관리 경호’로 설명하고 있다. 총리도 대상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과 2019년 김영哲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방미했을 때는 DSS 요원들이 근접 경호했다.

김형구 기자, 윤지원 기자

정부책임론 선긋는 청와대…김용범 “100% 입법 지연이 원인”

조현 “트럼프 관세 인상 메시지
쿠팡·온플법과는 무관하다 결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쓴 이유를 김 실장은 이렇게 분석했다. 김 실장은 “미국 불만의 100%가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이 제기하는 ‘정부 책임론’에 선을 긋고 ‘국회 책임’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

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MOU 체결 당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는 건 한국과 미국 간 아무 이견이 없었다. MOU를 비준하는 나라도 없다”며 “(비준은) 최근 한·미 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원인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가 나온 뒤 저희가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과는 (관세 인상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별한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이유에서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선언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미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을 기준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로 내렸다. 하지만 석 달 동안 특별법 처리에 진척이 없자 ‘상호관세 25%’가 언급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의 대미 투자금이 알래스카 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활용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최우선 원칙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알래스카 LNG (투자)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성민·여성국 기자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진료 내용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Kenzie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뇌졸증/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Licensed Acupuncturist

근골격계 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巴斯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근육 통증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원장 김우기 DPT, LAc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첸들리 지역]

UMEKEN

건강도 소화도

이제, 동시에 케어하세요!

제도아리
(자색강황)발효 양배추
엑기스비터멜론
(여주)5대
소화 효소프로테아제
리파아제
셀룰라아제
아밀라아제
락타아제

NEW

우메켄 NEW
오키나와 제도아리(정)

5대 소화 효소로 업그레이드된

우메肯 NEW 오키나와 제도아리

오키나와 미야코섬 제도아리에 발효 양배추와 여주, 5대 소화효소를 더해
소화를 원활하게 돋고, 지친 위장을 부드럽게 케어합니다.*

**쓰린 속을 부드럽게, 더부룩함도 시원하게!
위장은 건강하리, 소화는 빠르리!**

오키나와 우메Ken 농장의 최상급 제도아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소화불량과 위통으로 고생하는 분
-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신 분
- 식곤증, 식후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분
- 배앓이와 위장 경련이 심한 분
- 위장장애로 트림, 구취가 심한 분
- 습관적 구토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15년 구형 땐 “억울”… 1년8개월 나오자 재판부에 두 번 인사

마스크 쓰고 양팔 붙잡힌 채 출석
머리 숙인 채 내내 미동없이 무표정
재판장이 “무죄” 말할 땐 고개들어

“피고인은 청탁과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뿐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데 급급했다. 겁이 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란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고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영부인 지위를 영리 추구에 오용했다”고 질타하며 한 말이다. 김 여사는 우부장판사의 말에 고개를 더욱 숙였다. 우부장판사가 징역 1년8개월의 선고를 끝내자 김 여사는 재판부를 향해 손을 모은 채 두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는 곁에 선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서류를 들여다본 뒤 이윽고 교도관 두 명에게 양팔이 잡힌 채로 천천히 걸어 퇴정했다. 전직 영부인에 대한 첫 선고 공판 생중계는 40여 분 만에 종료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교도관들에게 양팔이 잡힌 채로 법정에 들어섰다. 뿐만 아니라 흰 목풀라 티셔츠,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머리를 한 갈래로 모아 묶고, 흰 마스크를 했다. 표정을 읽기 어려울 만큼 무표정을 유지했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잡혀 출석하고 있다. 이날 김 여사의 선고 공판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지법 영상 캡처]

다.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특검이 구형한 종 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 당시 김 여사는 “억울한 점이 많다”고 최후진술했다.

우부장판사는 선고 시작과 함께 “옛 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며 “법

의 적용에는 권리자든, 권리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하고 무죄주정의 원칙과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권리자 혹은 권력을 잃은 자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계를 지켜보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주요 혐의에 대한 무죄가 예상되던 발언”이라고 했다.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던 김 여사가 처음으로 고개를 든 건 우부장판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을 때였다. 김 여사는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단을 쳐다보며 귀속말을 했고, 변호사는 김 여사에게 미소 지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김 여사는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쉰 후 원손으로 마

여당 “국민상식 무시, 해괴한 판례” 야당 “100억 쓴 특검, 구형량 민망”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를 성토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브이 제로’(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우한 김건희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악으로 국정을 망친 짓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하나의 명품 가방은 앞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 가방은 앞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박 대변인은 “시세 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경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김나한 기자

‘주거지 이탈’ 조두순, 또 감옥 간다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재판부 “재범 우려” 치료감호 명령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집을 나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직후 조두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여러 차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3월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6시까지다.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준

수사함을 정면으로 위반해 지역 사회에 극심한 불안감을 안겼고, 이미 동일한 위반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두순은 “건강 악화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재택명령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반한 것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이미 5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 간이 짧았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복귀 조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모란 기자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베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베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베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에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리스트, 가디안,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페닌슬라
상담원영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Hot Spot Hot Pot

"OG AYCE HOT POT JOINT"

"Original All You Can Eat Hot Pot"

노던 버지니아 지역에서 십여 년 전,
가장 먼저 무제한(AYCE) 핫팟을 도입한,
저희 식당에 아직 한 번도 안 와 보셨다구요?
그럼 신년 맞이 \$19.99 무제한 런치 스페셜을
일단 드셔 보세요!



Limited Lunch Special

\$19.99

월 ~ 금요일
11:30am ~ 4:00pm
*Seafood는 제한됩니다.

1. 일반적인 런치 가격으로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고,
2. 따로 마련된 소스바에서 자유롭게 본인만의 소스를 직접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3. 육수 종류도 마라육수, 샤브샤브육수, 양육수, 김치육수, 미소육수, 버섯육수, 한방치킨육수 등 다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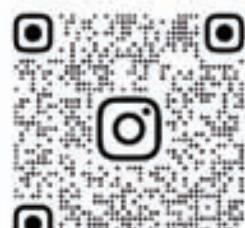
오리지널 무제한 핫팟, Hot Spot Hot Pot으로 오세요!



페어팩스점

3232 Old Pickett Rd., Fairfax, VA 22031
(페어팩스 circle, 흄디팟 맞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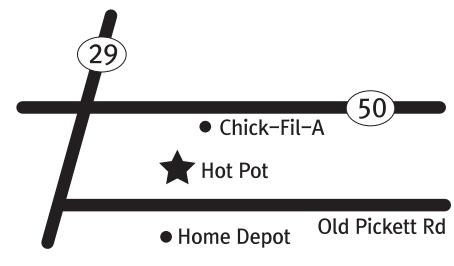
703-537-0325



챈틸리점

13908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챈틸리 롯데 건너편)

571-287-7332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otspotva.com)

‘통일교 1억’ 받은 권성동 징역 2년, 돈 준 윤영호 1년2개월

<1심>

특검팀 별건 수집증거 핵심 쟁점 재판부 “김건희·권성동은 윤 측근 대통령 관련 청탁 객관성 인정 윤영호, 한학자 승인 받고 실행”

통일교 측에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김건희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2년 2월 8일 권 의원은 가평에 한학자(통일교 종재)를 찾아가 만났고, 대선 이후엔 윤 전 본부장과 대통령 당선인의 독대를 주선하는 등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나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왼쪽 사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SNS 캡처]

재 내용, 카카오톡 내용, 이모씨(윤 전 본부장 아내) 사진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만남 직후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혐의를 뒷받침했다. 당일 다이어리에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1장 support(지원)’라

고 기재된 내용도 나왔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가 현금 전달 전 포장된 1억원을 찍은 사진도 유죄의 증거가 됐다.

이번 판결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을 지원했다는 특검 공소사실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1억원 전달과 함께 통일교

조직을 동원한 대선 지원을 약속했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고 청탁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선 위법 수집 증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특검팀이 수사에 활용한 증거물은 특검 출범 전 서울남부지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들인데, 당초 김 여사 샤넬백 수수 사건 수

사를 위해 이뤄진 압수였던 만큼 별건으로 수집된 위법 증거라는 게 권 의원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는 배우자고, 권 의원은 윤핵관으로 모두 대통령과 밀접한 죄족근”이라며 “앞선 압수수색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통일교 청탁을 수사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회의원은 헌법에 청렴 의무가 규정된 유일한 국가기관”이라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진행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과 업무상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승인을 받은 다음 직접 실행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혐의 중 미국 원정도박 수사에 대비해 회계 프로그램을 조작했다는 혐의(증거인멸)는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진호 기자

내일 본회의서 반도체특별법·필버 사회권 이양법 처리

원내수석 이어 원내대표 만나
비행점 법안 90여건 처리 합의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진행 시 의장이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 등에 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협상 끝에 기존의 수기 투표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앞서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 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29일 본회의에서 비행점 법안 90건을 상정하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산업 스파이 문제 대응 등을 위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안건에서 빠졌다.

여야 모두 법안 개정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형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외곡죄 신설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번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내달 2일 개회하고 3일과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장동 닳은꼴’ 위례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 모두 무죄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28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부(재판장 이준근)는 이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자신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위례 신도시를 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공모 절차 등 ‘비밀’을 넘겨 부당하게 ‘배당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2014~2017년에 추진된 개발 사업으로 시행 이익이 총 418억원 발생했고, 민간 사업자들은 부당 이익 211억

원을 챙겼다고 산정했다. 위례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들이 이후 대장동 비리에 연루되면서 ‘대장동 닳은꼴’이란 얘기를 들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이 유 전 본부장에게서 취득한 비밀로 “배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 덕에 민간 사업자들이 공모 절차에서 우위를 점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권을 따낸 후로 비밀을 활용한 적은 없기 때문에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 2013년 11월 1일 이후 취득한 배당 이익을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례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사업자 지위를 재산상 이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지만, 검찰이 위례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자 지위를 재산상 이익으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았다.

김성진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Penn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Invisalign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치아교정 · Periodontal Surgery

신경치료 ·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각종 보험 적용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에 정면충돌” 초유의 설명회

〈한국이 DMZ 출입 허가권〉

여당이 DMZ 출입권리 확보 나서자 유엔사, 정전협정 책자 들어보이며 “평화협정 대체 전까진 효력 유지”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우려 표명

정부 일각과 여당에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DMZ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유엔사가 28일 “DMZ법이 통과되면 이는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 충돌(direct conflict)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입장 표명 자체를 원칙으로 삼는 유엔사가 특정 사안에 대해 이처럼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한 건 이례적이다.

복수의 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기지 드래곤힐로지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만약 한국 정부가 유엔사의 승인 없이 DMZ 내 민간인 출입을 허가한다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 자체를 꺼려온 유엔사가 ‘위반’, ‘충돌’ 등의 용어로 사실상 DMZ법을 반박한 셈이다. 다만 유엔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관한 것이나 DMZ법에 대한 우려 표명도 아니며, 정전협정 등 법적 해석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정전협정과 DMZ법이 충돌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DMZ법이 통일부 장관 등 한국 정부에 의의로 DMZ 출입 허가권을 부여하려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게 유엔사의 입장이다.

다른 유엔사 관계자는 “DMZ 남측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적 영토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1953년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을 적용 받기로 주권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목은 지난해 조원철 법제처장이 유엔사 관계자들을 비공개 면담했을 때 조처장도 동의한 부분이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DMZ 남측 지역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권을 행사해 유엔사의 관할권을 빼앗아 갈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전협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되고, 한국이나 유엔사뿐 아니라 다른 이해 관계자들까지 심각한 여파(significant consequences)를 초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엔사는 “(DMZ 법이) 언론 보도가 되기 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도 했다.

또 다른 유엔사 관계자는 “DMZ 내부에서 어떤 사건이 양측 간 적대 행위로 귀결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유엔사 사령관에게 있다”면서 유엔사의 권한뿐 아니라 관리 책임도 부각했다. 그는 책자로 만든 정전협정을 들어보이며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명시적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며 “평화적 합의(평화협정)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유정 기자



김정은 자리 앉은 주애…방사포 시험발사 참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앞쪽)가 지난 27일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네 발의 방사포들은 358.5km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TV 캡처]

장동혁, 한동훈 제명에 “절차 따라 진행”…한 “닭 목 비틀어도 새벽 온다”

돌아온 장 “충분한 시간 주어졌다”
오세훈 “빨센 정치 팬 모두가 폐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 처리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제명의결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과 이후 입원 치료 등을 거쳐 13일 만인 이날 당무에 복귀한 장 대표는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aT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성룡 기자

통공사(aT) 센터를 찾아 물가 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 대표는 행사 뒤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해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며 “당내 문제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최고위에 제명안이 상정되고, 윤리위원회 결정대로 제명이 확정될 수 있다고 내비친 것이다. 그간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사이에서 물밑 조율을 시도했던 한 의원도 “반전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제명안 처리가 임박하자 내용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28일 김영삼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시사회 참석 이후 취재진을 만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 전 대통령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과 계속 가겠다”고 했다. 서울시당위원장과 맡고 있는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승리만을 위해 가자는 절박한 목소리를 장동혁 지도부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파국을 막기 위해 “제명만큼은 안 된다”는 중재 목소리도 계속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특정인을 짚어내듯 제명하고 빨센의 정치를 강행하는 건 모두가 폐배하는 길”이라며 “두 분이 오늘(28일)이라도 만나 터놓고 얘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 전 대표가 자기 스태프(장 대표)랑 진짜(보수)냐, 가짜(보수)냐를 놓고 싸우는 건 보수의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이해가 안간다”고 했다.

박준규·양수민 기자

주한미대사관, 미국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올해 250여건 행사 개최

주한미대사관이 28일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대사관은 이날 서울 성북구 주한미국대사대리관저에서 ‘표현의 자유: Freedom250 한미 창의 대화’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제정자 작가의 작품 10점이 전시됐다. 제정자 작가는 미국에서 활동한 1세대 한국 여성 작가이고 책

슨 플락 등 미국 작가의 영향을 받아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고 한다.

대사관 측은 25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로 올 한해 250건 이상의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한미 창의 대화’는 3개월에 1번씩 대사대리관저에서 미국과 관련이 있는 한국 작가 작품을 전시하는 식으로 총 4회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임스 헬러(사진) 미국대사대리는 “오늘 이 행사는 저희가 1년 내내 진행

할 캠페인의 일환”이라며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추구해온 이상들, 자유와 창의성, 모든 개인이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날 헬러 대사대리는 행사 말미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며 “청와대 일정 때문에 늦었다”며 사과했다.

청와대 방문의 경위와 대화 상대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헬러 대사대리가 한국 정부 부처에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촉구하는

사와 주한미대사관 관계자, 취재진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니콜라스 남바 주한미대사관 공보공사참사관은 “올해는 미국이 250번째 생일을 맞는 해”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기를 한국과 같은 긴밀한 동맹국들과 250주년 축하를 함께할 수 있도록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50년을 함께 되돌아보면서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뿐 아니라 향후 250년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것이 한국과 미국 간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함께 탐구해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통사고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럭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 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2025 Return

로드 절약을 위한
A
T
X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2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우리말 바루기

'결단', '결딴'

"올해는 운동을 시작해 꼭 살을 뺄 거야!" "1월 1일부터는 입에 술을 한 모금도 안 댈 거야!" 등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많은 이가 그동안 미뤄 왔던 일들을 실행에 옮기고 자마음먹는다.

중요한 판단을 내리거나 결심했다는 걸 나타낼 때 "결단을 내리다"라고 쓰곤 한다. 그러나 이는 바르지 못한 표기이므로 주의 해야 한다.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 또는 그런 판단이나 단정을 의미하는 낱말은 '결단'이 아닌 '결딴'이다. 발음이 [결딴]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결딴'이라고 표기하기 쉽지만, '결단'은 '결정할 결(決) 자와 '끊(斷)' 자로 이루어진 단어다.

'결딴'은 '결단'과는 다른 뜻을 지닌 독립된 단어로, 어떤 일이나 물건 등이 아주 망가져서 도무지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나 살림이 망해 거덜이 난 상태를 의미한다. "이젠 집안을 아주 결딴내려고 하는군" 등과 같이 쓸 수 있다.

"사업 실패로 집안이 완전히 결딴났다" "보증을 잘못 서서 살림을 결딴내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다" 등 '결딴나다' '결딴내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간혹 이를 '절딴나다' '절딴내다'로 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절딴'은 사전에 없는 말로, '결딴'으로 고쳐 써야 바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암범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자의 눈

베어스와 후지어스의 도전



박춘호
시카고 중앙일보
기자

프로풋볼(NFL)팀인 시카고 베어스의 올해 플레이오프 도전기는 디비전 시리즈에서 막을 내렸다. 지난 시즌 10패, 정확하게는 5승12패를 한 팀이 새로운 감독의 부임과 함께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그것도 2번 시드를 받았다. 오랜만에 진출한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전에서 라이벌 그린베이 패커스를 물리친 뒤 디비전 시리즈까지 진출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였다.

비록 지난 18일 LA 랩스와의 경기서 아쉽게 패배, 컨퍼런스 결승전 진출을 이루지 못했지만 1년 만에 거둔 진전에 베어스 팬들은 열광하고 있다.

인디애나대 풋볼팀은 19일 열린 대학 풋볼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마이애미대를 물리치고 전국 정상에 올랐다. 인디애나대는 그간 농구팀은 전국적으로 높은 명성을 누렸고 전국대회 우승도 차지했지만 풋볼팀이 전국 대회 우승을 차지한 것은 학교 역사상 최초다. 중서부 대학 언더독팀이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히고 있다.

인디애나대 풋볼팀 역시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 라이벌팀에 번번이 막히며 전국적으로 뛰어난 성적으로 보이지 못하다가 올해 정규시즌과 플레이오프까지 전승을 기록하며 우승까지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다.

올해 베어스와 인디애나대 풋볼팀의 선전에는 새로 부임한 감독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 베어

스는 벤 존슨 감독이 부임한 이후 팀에 남아 있었던 패배 의식을 전부 갈아치웠다. 케일럽 월리엄스라는 2년 차 쿼터백을 앞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아울러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시작한 오픈시브라인 전력 강화는 시즌 내내 월리엄스가 마음 놓고 패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방어선이 됐다.

인디애나대 풋볼팀은 만년 관심 밖에 있었다. 바비 나이트로 대변되는 인디애나대 농구팀이 워낙 전국적인 명성이 있었고 풋볼팀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인디애나주에는 지역을 연고로 하는 풋볼팀인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농구팀인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있지만 인디애나주라고 하면 아무래도 농구가 먼저 떠오르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디애나대 풋볼팀 후지어스도 역시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면서 팀 컬러가 완전히 달라졌다. 2024년 부임해 올해 두 번째 시즌을 맞은

커트 시그네티 감독은 작년 11승2패, 올해 플레이오프 포함 16경기 전승을 기록하는 놀라운 성적을 올렸다. 그의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그의 연봉이다. 시그네티 감독은 인디애나대 풋볼팀 감독을 역임하면서 연봉으로 1100만 달러를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탑 티어에 들어갈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후지어스의 올해 선전에는 하인즈만 트로피를 받은 쿼터백 페르난도 멘도자의 활약도 컸다. 기본적으로 수비가 탄탄한 팀이었는데 멘도자가 합류하면서 공격력 역시 더욱 날카로워졌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인터뷰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분을 언급하곤 하는 이 선수는 전형적인 범생이 스타일의 풋볼 선수다. 지병으로 훨체어를 타고 있는 어머니를 항상 먼저 챙기는 모습 역시 자주 보여주곤 하는 선수다. 할머니를 위해서도 하인즈만 트로피 수상식 연설에서는 스파니시로 감사의 말을 전했던 선수다. 경기 후 인터뷰마다 자신의 활약을 언급하기보다는 팀 동료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에서 이 선수의 장래를 엿보게 한다.

시카고 베어스와 인디애나대 풋볼팀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팀이다. 그 중심에는 팀을 이끌고 가는 감독과 그를 따르는 선수들의 노력이 있다. 팬들은 과거를 떨치고 가능성을 보여준 이 팀에 열광하고 있다.

이야침에

마침표를 먼저 찍다



이창민
목사·LA연합감리교회

'마침표'는 한 문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문장 부호다. 작고 둥근 점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점이 없으면 아무리 긴 문장도 끝나지 않고, 제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라도 완성되지 못한다. 마침표는 글을 멈추게 하지만, 그 멈춤은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멈춤이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다. 수많은 이야기가 마침표를 기준 삼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면서 삶은 한 편의 이야기가 된다.

황규관 시인은 '마침표 하나'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어쩌면 우리는 마침표 하나를 찍기 위해 사는지 모른다' 시인에게 마침표는 종결이 아니라 기다림이다. 한 문장이 끝났다는 사실은, 곧 다음 문장이 시작될 자리가 마련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는 말한다. '마침표 하나, 이것만은 빛나는 희망이다'

우리는 시간에 마침표를 찍은 뒤 과거라고 부르고, 부딪치는 일들에 마침표를 찍고는 경험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인생은 끝과 시작 사이에 놓인 그 작은 점 하나를 두고 연이어 이어진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 한 달, 일 년이라는 마침표를 찍으며 인생이라는 소설을 매꾸며 산다.

인생의 끝자락에 찍히는 마침표를 우리는 죽음

다. 그러나 삶은 계획표처럼 흘러가지 않는다. 삶의 마침표는 단순히 시간을 끝내는 표시가 아니라,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다. 마침표를 먼저 찍는다는 것은 하루와 한 해, 더 나아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마음에 품고 출발하는 지혜다.

그 지혜를 품은 이들에게 마침표는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것은 오늘을 의미 있게 살겠다는 다짐이며, 내일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옹골찬 결단이다. 마침표를 먼저 찍는다는 것은 끝과 시작, 과거와 미래, 현실과 이상을 동시에 끌어안는 일이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마침표를 먼저 찍고 시작하는 인생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결국 2026년이라는 시간의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고, 그 마침표가 모여 언제가 '죽음'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점 하나로 귀결될 것이다. 삶의 종점에서 찍게 될 마침표는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불들어 주는 보이지 않는 무게 중심이 될 것이다. 마침표를 먼저 찍고 오늘을 살 때, 우리의 삶이라는 문장은 흔들림 없이 아름답게 완성될 것이다.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순환장애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한국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원장 채여혜

- 복경증의학대학원 종의과 졸업
- 중국국의대학 연정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학대학원 종의학박사
- 임상 26년 경험

Dr. Chai, Ph.D.

상상력·유머로 현대미술과 접선하는 '조선의 팝아트'

"단색화 이후 K아트의 다음 키워드는 민화라고 봅니다. 조선 민화의 창의성과 현대성에 놀랐고, 이를 동시대 언어로 다시 풀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정병모 미술사학자)

"민화는 집을 장식하던 '생활 속 그림'이고 유머가 있습니다. '웃즈'가 지향하는 방향과도 잘 맞습니다."(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지난해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일으킨 '까지호랑이(사진)' 열풍이 기폭제가 되긴 했지만, 조선 후기의 대중 그림, 즉 '조선 팝아트'인 민화의 재조명은 이미 10년 넘게 벌드업되고 있었다. 2016년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미술관 '조선 궁중화·민화 걸작: 문자도·책거리', 2018년 갤러리현대 '민화: 현대를 만나다: 조선시대 꽃그림' 등은 민화를 '아마추어 민중화가의 소박한 그림'이라는 고정관념에 서 끌어내며, 참신한 조형·색감, 즉 흥성, 유머라는 현대적 면모를 부각시켰다.

단색화 이후 K아트 다음 타자는

'문자도·책거리' 전시를 공동기획했던 갤러리현대는 그 10주년을 맞아 지금 본관에서 '장엄과 창의: 한국 민화의 변주'를 열고 있다. 또 민화적 원형을 품은 동시대 미술을 다루는 '화이도'도 신관에서 개막했다. 단색화 이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K아트의 다음 타자를 민화 및 그 후계자에서 찾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지난해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조선민화전'과 안산시 경기도미술관의 '알고 보면 반할 세계: 민화와 K팝아트 특별전' 등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특히 후자의 전시는 민화 모티프의 단순 재현보다 "대중적 현실의 반영, 해학과 위트, 현세의 육망과 내세의 기원" 등 '민화적 태도'를 동시에 언어로 번역하는 작가들을 전면에 세웠다. 여기 참여한 김지평·박그림·이수경·임영주 등의 미술가들이 지난해 내내 여러 전시에서 활약이 많았다.

이렇게 '민화의 재조명'에 획을 그은



"원래 전공은 풍속화였습니다. 풍속화는 서민의 삶을 그리지만 소비자는 왕과 사대부였죠. 그런데 민화는 풍속화와 공유하는 지점이 있으면서 소비자가 대중으로 이동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적으로 압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유교 정신을 구현하는 문인화·수묵화만 중시했고 화려한 채색의 궁중화와 채색에 더해 자유로움과 창의성을 지닌 민화를 푸대접했습니다. 20세기 대다수 미술사학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문제의식으로 궁중화와 민화를 모아 2014년 『한국의 채색화』 3권 세트를 냈습니다. (지금은 추가로 발간되어 6권이다) 책을 낼 때 민화를 소장한 대기업 회장님들에게 접촉하기 위해 갤러리현대 박명자 회장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행으로 책 세트를 드리니 박 회장님이 '실은 나도 처음 화랑을 할 때 현대미술보다 고미술 민화를 다루고 싶었다'면서 한 번 의기투합해서 전시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6년 '문자도·책거리' 전시였습니다."

- 이번 '장엄과 창의' 전시에는 현대 작가들도 나오더군요.

"현대 미술가들뿐 아니라 현대 민화 작가들도 함께 보여주자고 제안했죠.

사실 현대미술계에서 민화 작가들을 살짝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걸 압니다.(여기서 '민화 작가들'은 현대미술을 하면서 민화를 응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민화로부터 공부한 작가들을 가리킨다) 하

지만 요즘 현대 민화를 그리는 사람들



■ 2022년 오스트리아 빈 세계박물관의 '책거리' 전시에서 설명 중인 미술사학자 정병모 전 경주대 교수. ■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 전시된 민화 모티프 웃즈. ■ 지난 23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이 블비는 가운데, 한 어린이가 '까지호랑이' 키링을 살펴보고 있다. 문소영 기자, [사진 정병모]

이 20~30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창의적인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선 민화를 연구하다가 어느 순간, 이를 동시대 언어로 풀어내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최근 카셀 도쿠멘타, 베니스비엔날레 등에서도 서구 모던의 상징인 추상성이 힘을 잃고, 지역의 삶과 이슈를 다루는 '토착 문화' 바탕 예술이 부상하고 있어요. 민화는 그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통은 최소한, 변수는 마음껏

- 민화가 유독 현대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자유로운 상상력과 유머, 그리고 직설 대신 우화로 사회를 비트는 방식입니다. 문인화나 궁중화는 지켜야 할 경식이 있지만, 민화는 최소한의 전통만 붙잡고 마음껏 변수합니다. 이 '창의'는 현대미술이 가장 중시하는 덕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민화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대중적이고, 동시대와 연결될 잠재력이 큽니다."

- 한때 글로벌 미술시장의 K아트 대표주자였던 단색화는 문인화의 후계자라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민화의 후계자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정확한 문제 제기입니다. 단색화는

서구 추상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한국적인 것'을 문인화 정신과 연결해 정당화 해왔죠. 이제는 단색(모노크롬)에서 채색(폴리크롬)으로, 즉 문인화의 계보만이 아니라 민화의 계보에서 동시대 언어가 더 크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정병모 교장과의 만남을 마치고 이번에는 히트 상품 '까지 호랑이 배지'를 비롯해 '웃즈'(뮤지엄 굿즈)로 지난해 돌풍을 일으킨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을 찾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상품·공연·식음료 등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이 재단은 2022년 '웃즈(MU:DS)'를 박물관 상품 브랜드로 론칭했고, 2023년부터 주요 상품군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매출도 급성장해 지난해 413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6배 이상 뛰었다.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 위치한 재단 사무실로 향하던 중 박물관 뮤지엄숍 두 곳에 들렀다. 솔안은 꽤 붐볐다. 이 말을 전하자 정용석 재단 사장은 "오늘은 추워서 다른 때보다 적은 것"이라며 "진짜 많을 때는 말 그대로 발디딜 틈이 없다"고 웃었다. 1020세대가 많더라도 기자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물관이 젊어졌는데, 웃즈가 그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또 "관람객 고령화를 걱정하던

도쿄 국립박물관이 우리 사례를 듣고 2월 말에 관계자들이 현장을 보러 오기로 했다"며 "해외와의 전시 교류도 중요하지만 유물을 자주, 오래 내보낼 수는 없는 만큼 굿즈를 통한 교류로 외국 대중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역할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 열리는 '이건희 컬렉션' 순회전에서 웃즈가 완판된 사례도 들었다. 정 사장은 "처음에 그쪽 관계자들이 주저하다가 3000만원어치를 매입해 판매했는데 5일 만에 완판돼 3배 이상 추가 주문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취객 선비 변색잔 세트 인기

다음은 정 시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많이 팔린 웃즈 순위를 보니 유머 있는 상품이 선호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케데한' 바람을 탄 '까지 호랑이 배지'가 1위, 그다음이 '취객 선비 변색잔 세트'였는데 김홍도 '평안감사향 연도'에 나오는 술 취한 선비들의 모습 일부를 따서, 잔에 소주가 차면 얼굴이 붉게 되는 상품이었죠. 재미와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반가사유상 마음시리즈'(핑크·민트그린 등 파스텔톤의 반가사유상이 볼하트 등의 포즈를 취한 미니어처상)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께 갖다 드렸을 때도 불경하다고 하시기는커녕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겠나'고요."

- 그런 면에서 웃즈에 영감을 주는 문화 유산 중에 국보·보물 뜻지 않게 민화도 중요할 것 같은데, 민화를 모티프로 한 웃즈는 아직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네, 아직 큰 비중은 아닙니다. 문구류에는 책거리·책가도가 많이 쓰이고, 부채에는 화조도가 많이 쓰이며, 지난해 APEC 때 각국 정상 및 배우자에게 선물된 뷰티 디바이스 패키지에 일월오봉도가 쓰인 것처럼 궁중화는 고급 웃즈에 쓰이곤 합니다. 다만 사례가 아주 많진 않습니다. 웃즈는 전시와 연계돼 개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민화 전시를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까지 호랑이 배지'도 작가가 평소 민화에 관심이 많아 그걸 바탕으로 디자인했는데, 처음엔 반응이 평범하다가 '케데한' 열풍과 함께 폭발했거든요. 당시 사실 '케데한'과 직접 관련된 웃즈가 많지 않았어요. 민화는 실생활과 밀접한 예술이었으니, 웃즈로 발전하기도 더 쉽다고 봅니다."

문소영 논설위원



지난 23일 만난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이 웃즈 '부스터프로 일월오봉도 에디션'을 설명하고 있다.

문소영 기자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챔터 7·챕터13·학자금융자 감면
서브챕터 5·챕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시설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 형량 낮지만 질타는 무겁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년8개월 형이 선고됨으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조유의 일이 벌어졌다. “영부인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의 판결문은 준엄했다.

김 여사가 끝까지 안 받았다고 했던 그라프 목걸이 도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받은 게 맞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징역형은 김건희 여사에게 내려졌지만 부끄러움은 국민 모두의 뜻이었다. 이 같은 참담한 경험은 우리 현정사에서 다시는 되풀이돼선 안 된다.

어제 판결에서

주목받은 것은 구 형량(15년)보다 선고 형량(1년8개월)이 훨씬 낮았다는

점이다. 공소장에 기재된 여러 혐의 가운데 많은 부분이 무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무리한 특검 수사를 통해 작은 의혹을 침소봉대한 것을 재판부가 바로 잡은 것이 아니나 시각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김 여사가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가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로 판시했지만, 이는 특검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며, 만일 주가조작 방조범으로 함께 기소했다면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을 수 있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남아 있

다. 또한 주가조작 혐의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는 김 여사에 대한 ‘득장 수사’와 ‘봐주기 수사’ 탓이 크다.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봤고, 권력자는 검찰에 유무형의 압력을 넣은 결과인 것이다. 일부 알선수수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도 김 여사의 행위 자체에 대한 면죄부를 내렸다기보다는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한 결과에 가깝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구형에 비해 낮아진 판결 형량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엄격한 잣대로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을 해 내린 재

판부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여당이 낮은 형량에 불만을 표시하며 재판부

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사건 1심에서 구형량(15년)보다 높은 형량(23년)이 나왔을 때 보인 태도와 정반대 아닌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몰아세우며 사법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명분으로 삼는 건 편의적 해석의 차원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외압을 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설사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급심 재판을 차분히 지켜보는 게 마땅하다. 김 여사에겐 ‘매관매직’ 혐의와 통일교 관련 재판도 더 남아 있다. 법원은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수사·감독 공무원 마구 늘려서 뒷감당되겠나

이재명 정부 들어 중앙 행정부처와 산하 공기업에서 인력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국민의 행정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인력이 부족해 불가피하다는 논리지만, 단기간에 공공부문 인력을 대폭 늘릴 경우 두고 두고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 특히 규제 부처의 수사·감독 관련 공무원을 많이 늘리는 추세인데, 이는 민간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공공부문의 효율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올해 증원이 확정된 중앙부처 공무원 규모는 2550명인데, 고용노동부·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부처에 집중됐다. 노동부의 경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위를 갖는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한다. 기존 3000명의 약 66%를 단기간에 확충하는 셈이다. 아무리 산업체에 엄벌을 외치는 ‘노동 친화 정부’라지만 감독 조직이 이렇게 비대해지면 단속 실적을 채우기 위한 무리한 행정이 날발될 수 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는 올해 167명을 늘리기로 했는데, 이는 전체 조직(약 700명)의 약 25%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이 기간제 체납관리단 인력을 4000명 증원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소심하다”고 질책하면서 “1만~2만 명도 가능하다”며 대폭 증원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 특사경 증원에 대해서는 인지수사권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이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에 이어 나온 것으로 금감원이 주가 조작이나 기업회계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인지수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금융위가 우려하듯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소지를 무시할 수 없다. 이처럼 규제 공무원을 대규모로 늘리는 것이 과연 국민 생활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의문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높은 청년 실업률을 고려해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을 지난해보다 4000명 늘려 2만 8000명을 채용하겠다면서 2020년 이래 최대 규모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재정에 부담을 안기게 된다. 올해 공무원 총인건비만 해도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행정서비스 수요는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원 늘리기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대응하면 뒷감당이 되겠나. 인공지능(AI)을 최대한 활용하고, 재교육을 통한 기존 인력 재배치 등 효율화 방안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순리다. 공무원은 신분을 보장받아 해고가 어려운 만큼 한번 뽑을 때 최대한 신중해야 마땅하다. 즉 흥적으로 단기간에 공무원·공기업 정원을 늘릴 일이 아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비대하게 키울 생각을 접고, 민간 부문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빙공영사’에 놀란 친명

(憑公營私)

김승현의
시시각각

時 視 問 角



“의도한 게 아니면 궁합이 안 맞는 거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친명(이재명)계 의원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경계심을 필자에게 나타냈다. 그가 의도를 의심한 일은 지난 22일 정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발표. 주가지수 5000을 달성한 정부의 호재가 정치 뉴스에 덮였다고 본 친명계는 정 대표가 야속했을 것이다. 설마 축제를 망치려고 의도한 건 아니었을 테니, 그렇다면 정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궁합에 문제가 있다는 ‘원초적 의심 본능’에 도달한 것이다. 정 대표에 대한 친명계의 근본적인 불신을 표출한 완곡 화법인 셈이다.

최근 친명계는 정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못 미더워 한다. 당의 공익적 목표를 빙자해 사적인 자기 정치를 꾀하는 ‘빙공영사(憑公營私)’로 보는 것이다. 오는 8월 당 대표에 연임하려는 ‘빌드업’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다. 전격적인 합당 발표에 친명계 최고위원(이언주·강득구·황명선)들이 “조국혁신당 지도부에는 미리 알렸으면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에게는 발표 20분 전 통지로 끝냈다”고 분노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청와대와 조율했다”는 정 대표의 말에는 “정 대표가 대통령과 논의한 바 없다”며 ‘대통령팔이’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사전에 논의된 것이 없다”(강유정 대변인)고 했다가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홍의표 정무수석)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미묘하다. 이후 정 대표의 경쟁자로 평가받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터뷰에서 “발표 방식이나 시기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고 말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친명계의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APEC의 성과를 누려야 할 타이밍에 재판증지법을 추진해 친물을 끼얹었고, 당원 주권 시대라는 키워드로 1인 1표제를 추진해 당권 장악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궁합이 맞지 않는’ 상황이 누적됐다가 조국혁신당 합당 발표가 트

리가 된 상황이다.

지난 19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만찬을 하며 갈등설을 잠재웠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반명입니까”라고 묻고, 정 대표가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청와대)입니다”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지금 보니 서로 빼 있는 농담을 했던 셈이다.

전격적인 합당 발표로 6월 지방선거와 8월 전당대회의 유불리까지 계산해야 할 상황이 되자 계파는 물론 족보와 궁합까지 따지게 된 것이다. 화석이 된 줄 알았던 모든 갈등 바이러스는 되살아날 것이다.

일족족발의 위기는 이해찬 전 총리에도 기간으로 잡시 휴전 상태다. 정 대표는 지난 26일 위험 신호를 의식한 듯 ‘에도 기간 중 언행 주의, 정쟁적 논평자제’ 등의 지시를 내렸다. 같은 날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종회가 연기되지 않았더라면 ‘정쟁적 언행’은 분출했을 것이다. 더민초에선 “장례가 끝난

정청래 합당 발표에 분노 폭발
대표 연임 노린 ‘빌드업’ 의심
공익 빙자한 사심이 갈등 키워

뒤엔 전쟁”이라는 말도 나온다. 총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정 대표 맡은 안 민는 분위기라고 한다. 앞서 “절차적 절당 성 없는 독단적 합당 추진”이라는 반대 성명도 발표했다.

친청 유튜버 김어준씨도 친명계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그가 설립한 여론조사 기관(여론조사꽃)이 차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김종리를 제외해 달라는 총리실 요청을 거절한 게 뒷말을 낳고 있다. 김 종리의 당 대표 출마를 막으려고 시장 후보에 김 종리를 넣는다는 주장에 김씨는 “너무 유치해서 무시 할 이야기”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김씨가 당권은 정청래, 대권은 조국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는 음모론이 돈다.

조국혁신당의 청구서까지 더해지면 범여권의 계파 갈등은 더 침에해질 것이다. 공적인 명분을 빙자해 벌어질 수싸움을 생각하니 벌써 뒷골이 쑤신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li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판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운

1965년 9월 22일 창간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기0019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자작판권(C) 중앙일보·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기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 예촌 앞 빌딩 3층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국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 임상경력 50년
- * 각종 보험 취급
- * VA, MD, DC 면허 소지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와 함께 하는



건강한 인생 & 의료비 나눔

크리스천들을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의료보험아 아닌 크리스천들을 위한 의료비 나눔 사역



- CA, DC, MA, NJ, RI 주: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 면제 혜택

- IN, MO 주: 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30여 년의 신뢰와 경험, CMM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CMM 회원 혜택

✓ 경제적인 월회비

- 월 \$45로도 질병당 입원 및 수술비 최대 \$150,000
- 25세까지 부양 자녀 1유닛 회비 적용

✓ 글로벌 의료 서비스

- 미국, 한국 포함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 가능
- 원하는 의사와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

✓ 의료비 나눔

- 질병당 최대 \$150,000
-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1,000,000 추가
- 가입 전 질환에 대한 의료비 나눔 범위 확대

✓ 100% 한국어 서비스

- 한국어와 영어 서비스 제공
- 간단하고 신속한 가입 절차
- 연중 언제든지 회원 가입 가능

지금 바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나에게 맞는 레벨을 확인하세요!



773-777-8889

2315 Sanders Rd.
Northbrook, IL 60062www.cmmlogos.org
info@cmmlogos.org

가입문의: 773-777-8889 (Ext.5002) 동부지부 김준범 지부장: 917-535-1144, 917-500-1330

Disclaimer: Logos Missions Christian Mutual Med-Aid (hereinafter "CMM") is a 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of its members.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The plan of CMM operation or any other CMM document must not be considered an insurance policy. All assistance from CMM for your medical bills is coming from the totall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MM members. Membership or being a member of CMM is a missionary concept and signifie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of a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Regardless of medical expenses sharing and operation of CMM, the member is person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ir medical bills.



JAN 29th - Feb 5th, 2026

추운 날씨엔 따뜻한 꿀유자차!

Stay cozy with a warm Honey Citron Tea on cold days!



담터
꿀유자차
Honey Citron Tea

\$ 699 **\$1099**
1 KG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79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Sterling, VA
30 Potomac Hill Dr, Sterling
VA 20166

Centreville, VA
5500 Centreville Creek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2865 Metrusch Dr
Chantilly, VA 20181

Annandale, VA
5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830 Fairway Hurd Plaza
Ashburn, VA 20147

Ellisott City, MD
8801 Baltimore National Pkwy
Ellisott City, MD 21043

Catonsville, MD
3500 Baltimore National Pkwy
Catonsville, MD 21228

Rockville, MD
11022 Vista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파이낸스 & Sports

연예/문화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January 29, 2026 C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규모가 큰 신종입니다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95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프)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매출한 평생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703)303-4556 / t. (703)303-0988
f. (703)569-0600
8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6% 이상 모기지, 2%대보다 많다

고금리 주택 비중 증가
5년만에 처음으로 역전
모기지 비싸 이사 안하는
금리고착 현상 해빙 조짐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모기지 금리가 6% 이상인 주택 소유자의 비중이 3% 미만의 초저금리 모기지를 보유한 비중을 넘어서졌다.

리얼터디컴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모기지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데터에 따르면 금리 6% 이상 주택 소유자는 전체의 21%였다. 반면 금리 3% 미만 주택 소유자는 20%였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주택시장을 사실상 얼어붙게 만들었던 금리고착 현상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초저금리 모기지를 포기할 수 없어 이를 미뤄 왔던 주택 소유자들이 점차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이사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된다.

리얼터디컴의 대니얼 헤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결과는 일부 가구가 저금리 모기지를 포기하고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이사한 것과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이 늘면서 점진적으로 주택시장이 조정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기지 금리가 6% 이상인 주택의 비중이 3% 미만인 주택 비중을 넘어서면서 모기지가 비싸 이사를 꺼리는 현상에 변화가 일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아직은 작은 해빙에 불과하다. 초저금리와 금리 고착의 영향은 여전하다. 초저금리 주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주택의 금리가 현재 모기지 금리보다 훨씬 낮다. 이번 데터에 따르면 전체 모기지 보유자 가운데 약 80%는 여전히 금리 6% 미만의 대출을 유지하고 있다. 약 70%는 5% 이하이며 50% 이상이 4% 이하금리다. 이런 상황에서는 평균적인 주택 소유자는 집을 팔고 현재 금리로 새 모기지를 받을 경우 월 모기지가 최대 1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모기지 금리가 코로나 19 초기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특히 초저금리 주택 구매 열풍이 시장 전반에 얼마나 장기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남기는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3% 아래로 떨어진 시기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가 유일했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현재 4.16% 수준이며, 2022년 이후 6%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고금리 모기지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들은 집이 필요하고 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은퇴를 하면서 집을 줄이거나 늘린다. 모두

가 코로나19 시기의 초저금리 모기지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과 모기지 금리가 동시에 높아지면서 많은 이들이 주택시장에서 밀려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 곳곳에서 작은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모기지 금리는 2023년 7%를 웃돌던 고점에서 상당 폭 내려왔다. 지난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기지 채권을 더 많이 매입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일시적으로 5.99%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주택 거래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다시 늘어나는 조짐도 포착되고 있다. 리얼터디컴의 해나 존스 수석 경제연구분석가는 “여기 저기에서 작은 활동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금리고착의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가격을 낮추는 데 강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모기지 금리를 낮추고 주택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구상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연방정부는 집을 팔더라도 기존의 낮은 모기지 금리를 새로 구매하는 집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용 모기지(portable mortgage)’ 구상까지 검토한 바 있다.

안유희 객원기자

주택보험료 새해 또 오른다

가주보험국이 보험사 두 곳의 주택보험 요율 인상을 승인하면서, 올해 주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주보험국은 지난해 12월 머큐리 보험

과 CSAA 인슈런스 그룹에 대해 6.9%의 보험료 인상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여년간 산불과 기후 재해로 사설상 봉고 상태에 놓였던

가주 보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속 가능한 보험 전략의 일환이다.

머큐리는 이번 승인 조건으로 향후 2년간 6000건 이상의 신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3만8000건 이상의 신규 계약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약 65만 명의 머큐리 가입자가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가입자의 주택 위치와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는 최대 10% 인하될 수도 있지만, 일부는 최대 60%까지 인상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Ebenezer Total Wedding Service
중매 결혼식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메어, 메이크업 연회장 피로연 주례 사진촬영
7 Broad Ave STE 106, Palisades Park, NJ 07650
상담 및 예약 : 917.359.1578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리스팅 접수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그냥 팔지 마세요” 뉴스타에서 이쁘게 수리하고 꾸며드립니다.
• 수리 전 가격 : \$650,000
• 공사비(후불) : \$45,000
• 수리 후 가격 : \$750,000
* 집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하고 파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부동산 학교
수업료:\$350 (교재비: \$100)
2025년 9월 16일 (화) 개강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쪽집게 세일 • 온라인 수업 방법 • 기본 컴퓨터 교육
• 학期末 10주 실전교육 • 자체 제작 한글 교육 및 문제 풀이
파란면 오시면 100% 할인보장!!

버지니아
\$999,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치고 2
넓은 구조와 잘 가꾸어진 집, 벽돌, 마루바닥

\$1,05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치고 2
우드슨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많이 함

\$1,875,000
비엔나 싱글홈
방 6, 화장실 6, 치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1,07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2+1, 치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가꾸어진 집, 좋은 가격

\$649,000
SE 타운
방 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한 이쁜 집

매릴랜드

DC

10만불로 창업.. 저비용 프랜차이즈 뜬다

경기 불확실성 속 무점포·모바일 모델 급성장
이동 주유·인생네컷 등 생활편의 서비스 중심
미검증 신생 브랜드 경험·재정 기반 취약 가능
전문가들 낮은 비용만 보고 수익성 과신 위험

초기 투자비용 10만 달러 미만의 '저비용 프랜차이즈'가 창업 시장의 대안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예비 창업자들이 무점포·모바일형 등 진입 장벽이 낮은 모델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프랜차이즈협회(IFA)에 따르면 저비용·무점포 프랜차이즈는 최근 수년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 서비스, 방문 정비, 이동식 세차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부상하면서 외식 중심이던 프랜차이즈 시장이 생활 편의형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미국지회(지회장 호세진)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프랜차이즈 가운데 인생네컷을 대표적인 저비용 모델로 꼽았다.

협회 측은 "인생네컷의 매장 없는 키오스크형 모델은 10만 달러 이하로 창

업이 가능하며 속인숍이나 푸드코트, 쇼핑몰 내 입점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스드퓨얼'은 생활편의형 프랜차이즈의 대표 사례다.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주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 사업으로 사무실이나 매장이 필요 없다.

프랜차이즈 가입비는 약 5만 9500달러, 차량 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 창업비는 약 10만 달러 수준이다. 주스드퓨얼은 창업 3년 만에 중부와 남동부 지역에 19개 가맹점을 확보했으며 본점 매출은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 같은 모델은 스마트폰 플랫폼과 소비자 편의성을 기반으로 한다.

프랜차이즈 컨설팅 기업 SMB 프랜차이즈 어드바이저스의 브라이언 루시아니 최고책임자는 "애완동물·교육·퍼

트니스·홈 서비스 분야의 신규 프랜차



주유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인 주스드퓨얼(왼쪽). 부에나파크 더 소스몰에 있는 인생네컷 매장.

[각 업체 제공]

이즈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낮은 창업비만 보고 뛰어들어 실제 필요한 자본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수익성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손명신 지회 재무담당은 "투자금이 작은 만큼 수익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10만 달러 이하 투자로 월 1만 달러 수익을 보장한다는 홍보는 과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협회(AFA)의 키스 밀러 공공정책 담당은 "저비용 프랜차이즈 상당수는 검증되지 않은 신생 브랜드로 본부의 경험과 재정 기반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생 프랜차이즈는 로열티 만으로 운영이 어려워 신규 가맹 판매에 의존하는 구조에 빠지기 쉽다.

손명신 재무담당은 "저자본일수록 가맹계약 전 숨은 비용과 가맹본부의

재무 건전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FDD)에는 비용 구조와 재무제표가 담겨 있고, 요청 시 공개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교육 시스템의 검증 여부 ▷가맹본부의 재무 건전성 ▷브랜드의 지속 성장 가능성 ▷시장 진입 장벽 ▷필요 운영자금 규모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기자

집값 너무 비싸.. 친구·가족 공동 구입 늘어

연애·결혼 관계 아닌
새로운 소유 트렌드 주목



미국에서 주택가격이 치솟으면서 전통적인 부부 단위의 주택 구입 대신 공동 구매(co-buying)가 점점 늘고 있다.

지역방송 폭스5 뉴스 보도에 따르면 요즘 연애나 결혼 관계가 아니어도 친구나 가족이 함께 집을 사는 구매 형태가 늘고 있다. 신용 및 대출 전문가 케이트 우드는 인터뷰에서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과 공동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친구 사이인 두 명 또는 가족 관계지만 부부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함께 모기지를 내고 집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중개인협회(NAR)의 지난 해 보고서에 따르면 첫 주택 구매자 중 25%는 미혼 여성, 10%는 미혼 남성으로 조사됐다. 반면 결혼한 부부의 비중은 50%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또한 첫 주택 구매자의 중간 연령대는 2024년 38세에서 2025년에는 40세로 상승했

으며, 첫 주택 구매 비중은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공동 구매 전문가 크리스티나 모다레스는 20대 초반 혼자 집을 사려 했지만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대출 승인을 받지 못했고, 결국 친구와 함께 집을 구매하게 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전문가 우드는 특히 미혼 여성이 공동 구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추세가 "전통적인 주택 구매 방식에서

벗어나, 각자의 재정적 상황과 감정적 준비 상태에 맞는 방식으로 주택 소유 형태가 바뀌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모다레스는 다만 "공동 구매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파트너로서의 신뢰성과 역할에 대해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동 소유 트렌드는 주택 소유를 단순히 '라이프 이벤트'가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도 바라보게 해준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김지민 기자

소비자신뢰지수 12년 만에 최저

1월 84.5.. 팬데믹 때보다 악화
현재·미래 상황 신뢰 급락 반영

보드의 데이나 피터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지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90.0)도 크게 밀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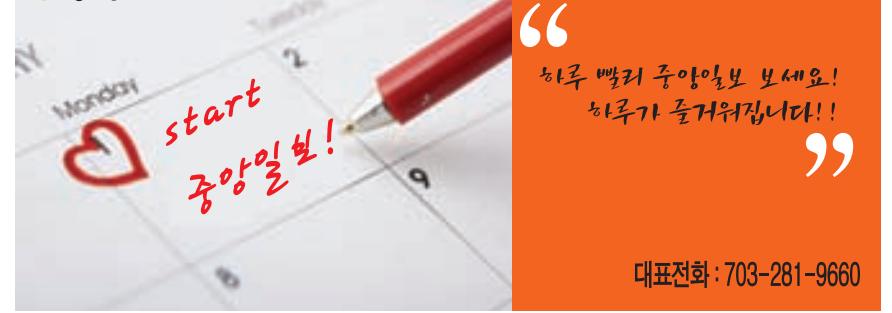
현재 및 미래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모두 급락한 게 반영됐다.

현재 사업 및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현재상황지수가 113.7로 전월 대비 9.9포인트 급락했고, 소비자의 단기 미래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도 65.1로 전월 9.5포인트 급락했다.

기대지수가 80을 밟을 때 경기침체를 앞두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여겨진다.

이번 소비자 신뢰지수 설문조사 대상 시기는 지난 1월 16일까지였다.

① 중앙일보



대표전화 : 703-281-9660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NVAR Top Producer
Zillow Premier Agent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버크 타운홈

비엔나 콘도

매너스 콘도

신규 리스팅
클립턴 싱글홈 \$900,000
방4, 화3, 카고1,
다수 업그레이드 완료

COMING SOON
센터빌 타운 \$600,000
방/화2.5, 카고1

페어팩스 타운홈
\$675,000
방3, 화2.5, 카고1
PENDING

페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카고2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지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균형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 Chris Shin
Esq.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자산 불리기보다는 조정·리스크 리뷰 필요

은퇴 앞두고 다시 보는 생명보험·연금·투자계좌

은퇴를 앞둔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해온 생명보험, 투자성 연금, 그리고 브로커리지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 자산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설계 당시의 목적과 현재의 재정적 필요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자산 축적이 핵심이던 시기에는 수익률과 성장성이 최우선 기준이었지만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는 기준 자체가 달라진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불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은퇴 이후 발생할 리스크와 지출을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다. 이 변화는 기준에 보유한 금융상품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이유가 된다.

▶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중심 구조의 한계**
오래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의 대부분은 사망보험금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소득이 증가하고 부양 가족이 많던 시기에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사망 시 가족에게 남겨질 재정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 보험의 핵심 역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는 리스크의 성격이 달라진다. 자녀는 이미 독립했고 생활비 구조도 일정 부분 안정된 경우가 많다. 반면 현실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장기요양, 만성질환, 중증 질환과 같은 생존 리스크다. 이 시점에서 사망보험금 위주의 구조는 실제 필요와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최근 보험 리뷰의 핵심은 ‘유지할 것인가, 해지할 것인가’의 문제 가 아니라 현재의 필요에 맞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있다.

특별히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것이 확인된다면 장기요양, 중병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리빙 베니핏’이 강화된 구조로 전환하면 기존 보험의 자산과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은퇴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비용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생명보험을 투자 상품



열심히 축적한 자산과 투자 계좌가 있다면 은퇴를 앞두고 무리한 욕심보다는 어떻게 잘 통제해 실제 경제 활동에 효과적으로 투입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
자산의 역할과 평가 기준이 변화하는 시점
생명보험 한계와 리빙 베니핏 필요성 증대
축적 단계 논리 벗어나 효율적인 통제 필요
자산 규모보다 구조와 기능 재정의가 핵심

처럼 평가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 은퇴 이후의 생명보험은 자산 증식 수단이라기보다 예측이 어려운 비용을 통제하는 재무적 도구에 가깝다. 역할이 명확해질수록 보험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오히려 더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 **투자성 연금: 축적 단계 논리의 지속 이 가져오는 문제**

투자성 연금 역시 많은 은퇴 예정자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자산 중 하나다. 과거에는 세금 이연과 장기 투자

에 따른 성장 기대가 주요 장점이었다. 하지만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이 연금이 여전히 축적 단계의 논리로 운용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일부 연금의 고비용 구조는 성장 기대마저 저버릴 때가 많다.

어쨌든 문제는 은퇴 이후에는 시장 변동성의 영향이 과거와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근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 가치 하락이 발생하면 회복을 기다릴 시간 자체가 부족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자산이 공격적인 투자 옵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면 이는 은퇴 설계 전반에 구조적인 리스크가 된다.

이 시점에서 연금 전략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성장률보다는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소득 구조가 더 중요해진다. 기준 연금을 리뷰하고, 필요하다면 교환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소득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이유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성은 단순한 원금 보장 여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은퇴 기간 동안의 수명 리스크, 인플레이션, 다른 자산과의 조합까지 고려했을 때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핵심 기준이 된다. 잘 설계된 연금은 다른 투자 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 **브로커리지 계좌: 은퇴 전후 리스크 프로파일의 변화**

브로커리지 계좌는 은퇴 예정자들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가장 관리가 어려운 자산이 이기도 하다. 주식과 ETF 중심의 계좌

는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공했을 수 있지만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는 그 변동성이 그대로 생활비 리스크로 전환된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계좌의 리스크 프로파일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소득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던 시기에는 감내할 수 있었던 변동성이 은퇴 이후에는 심리적·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기준 포지션을 유지하는 이유는 명확한 대안 구조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보수적 전환이 아니다. 브로커리지 계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재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자산은 여전히 성장 역할을 유지할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보다 예측 가능한 소득 또는 변동성 완충 역할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자산 배분과 인출 전략을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의 현금 흐름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 **핵심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구조’**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자산의 총액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실제 은퇴 이후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자산의 크기보다 구조와 기능이다.

언제 어떤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유지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는지,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준비되어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오래 보유해온 생명보험, 투자성 연금, 브로커리지 계좌 등은 반드시 한 번쯤 점검되어야 할 대상이다. 과거에는 최적이었던 선택이 현재에는 비효율이 될 수 있고, 구조를 조금만 조정해도 은퇴 이후의 안정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은퇴 준비란 새로운 자산을 추가하는 작업이 아니다. 이미 보유한 자산을 현재와 미래의 필요와 목적에 맞게 재배치하는 과정에 가깝다. 은퇴를 앞둔 지금은 자산을 더 늘리기보다 자산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킴 최 아파트 자산관리 대표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일년에 80~100여 주재원 렌트 구해 줍니다.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28
(타이슨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탕감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돋웁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우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경전 중심의 종교일수록 인공지능이 장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라리 “AI에 종교 장악될 것”

단어로 된 모든 것 장악
이슬람·기독교·유대교 등
경전 중심일수록 취약해

‘사이언스’의 저자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지난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인공지능(AI)이 종교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경전 중심의 종교일수록 AI의 영향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라리는 “성서의 가장 위대한 전문가가 AI가 된다면, 경전 중심 종교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단어를 배열하는 능력에 있어서 AI는 이미 우리 중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며 “단어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AI에 의해 장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이 단어로 만들어졌다면 AI는 법체계를 장악할 것이고, 책이 단어의 조합이라면 AI는 책을 장악할 것”이라며 “종교가 단어로 구축

돼 있다면, AI는 종교를 장악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라리는 이 현상이 특히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처럼 경전에 기반한 종교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떤 인간도 모든 유대교 경전의 단어를 전부 읽고 기억할 수는 없지만, AI는 쉽게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류가 세계를 자배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장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이라는 수단을 활용해 수천만, 수십억의 낯선 사람들을 협력하게 만드는 방법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우리의 초능력이었다”고 말했다.

하라리의 다보스 영상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하라리의 분석에 공감했지만, 종교를 단순히 ‘단어의 집합’으로 환원할 수 없다는 반론도 거세게 제기됐다.

AI는 이미 종교의 모습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말 온라인 뉴스 매체 앤시오스는 일부 교회들이 신자

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설교를 개인 맞춤형으로 조정하는 데에도 AI를 도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예수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성경과 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기반 종교 애플리케이션도 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종교 제도 전반이 흔들리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미국 성인의 비율은 2007년부터 2019년 사이 16%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AI 혁명이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흐름 속에서 종교 역시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하라리의 경고는 AI가 신앙의 내용을 대신할 수 있는지, 종교의 권위와 해석 주체가 기술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의 주장에 대한 찬반 논쟁은 AI 시대 종교의 역할과 의미를 둘러싼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안유희 객원기자

미국 가톨릭, 군사력 중심 외교 비판

최고위 대주교 3인 공동성명

미국 가톨릭교회의 최고위급 대주교들이 19일 외교정책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카고 대교구 소속 블레이즈 쿠퍼 치 대주교와 워싱턴 대교구의 로버트 맥엘로이 대주교, 뉴어크 대교구의 조셉 토빈 대주교는 최근 미국의 외교적 움직임이 세계 평화와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

했다. 세 대주교는 성명에서 군사력 중심의 접근 방식이 외교정책을 지배해서는 안 되며 외교는 대화와 합의,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최근의 국제 현안들이 군사력 사용과 평화의 의미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도덕적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

가했다. 생명권 존중과 인간 존엄성 수호, 종교의 자유 옹호가 전 세계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한 대주교들은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당파적 분열과 파괴적인 정책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주교들은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군사력 사용을 우선시하는 외교정책 방향에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공격성이 인간관계 근저 구성



박검진의 종교·철학 여행

자크 라캉의 죽음 충동

유아기에 거울로 자신 보면서
조각난 이미지를 자아로 간주
절단된 이미지서 공격성 생겨

자크 라캉은 ‘유아기’에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조각난 이미지를 합성하고, 그것을 ‘자아’로 간주하면서 산다고 한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유아가 성장하고 뇌가 발달하면서 자신의 내부에 ‘자아’가 형성되어 외부에서 자기 이미지를 인지한다고 한다.

반면에 라캉의 주장은 내부에서 자아가 형성되는 구조가 아니라 외부에서 비친 자기를 ‘자아’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라캉은 이것을 ‘소외(疏外)’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인간은 외부 이미지에 자기를 의탁하고 그것을 자기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의 정신분석가 무카이 마사아키(向井雅明·78)에 따르면, 프로이트는 트라우마 성 신경증 즉, 전쟁 등으로 심적 스트레스를 입은 사람이 그것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나 고뇌에 가득 찬 그 환자에게 쾌락 원리로써 그것을 불식시키려 시도했으나 환자는 치료가 부정적으로 되면서 증상의 고로움에도 불구하고, 분석가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치료의 방향과 역행해 나가며 분석을 중단하려고까지 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 프로이트는 쾌락 원리의 깊숙한 곳에 더 근본적인 원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을 ‘죽음 충동’이란 이름으로 불렀다. 그는 인간의 심적 메커니즘을 ‘죽음’을 나타내는 ‘타나토스’와 ‘생’을 나타내는 ‘에로스’ 사이의 상반된 두 충동에서 일어나는 투쟁이라고 가정하고, 주체적 메커니즘을 생각했다.

반면에 라캉은 ‘죽음 충동’에 대해서 ‘거울단계’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며, 절단된 신체의 이미지에서 발생하는 공격성으로 해석했다.

즉, 자아의 본질은 언제나 “나인가, 타자인가” 사이에서 전제적인 신체 이미지를 둘러싼 투쟁이며, 인간관계의 근저는 이러한 공격성에 고지하고 있는 근친상간 금지의 직접적 결과라고 했다.

의해 구성된다고 한다. 그러나 ‘상징계’로 이동하면서 그곳의 자아와 타자는 나르시시즘적 관계에 있으며 ‘쾌락 원리’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한다.

죽음 충동을 현실계(실재계)와 연계하면서 ‘쾌락 원리’란 심적 메커니즘에서 항상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메커니즘으로, 에너지가 증대하면 그것을 처음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말한다고 한다. 즉, 프로이트의 사상을 그대로 채용하면서 죽음 충동은 충동으로 끝나는 것으로 매듭을 짓는다.

무카이 마사아키에 따르면, ‘충동’이란 흥분의 일종으로 여겨지는 데, 생리적 흥분의 경우, 성욕의 욕구가 충족되면 가라앉는 일시적인 데 비해, 충동은 ‘항상성’으로 작용하는 압력으로써 제로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충동의 목적은 충동의 충족이다.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어머니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오이디푸스 적 모자 관계가 생긴다고 한다. 즉, 요구의 만족으로 아이는 어머니의 팔루스(성기) 위치에 놓이고,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는 일체화된 완전한 대타자(the Big Other)의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한다.

대타자의 일체화된 완전성이 유지되는 한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근친상간 구조를 벗어날 수 없기에, 라캉은 주체의 탄생을 위해 반드시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봤다.

충동의 목적에는 이와 같은 근친상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프로이트는 충동의 목적을 성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충동의 만족은 근친상간 욕망의 만족을 가져오고 아이를 ‘전 오이디푸스기 (preoedipal phase)’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러므로 충동의 만족은 ‘거절’되어야 한다고 한다.

레비스트로스는 그의 저서인 ‘구조인류학’에서 친족 기본단위의 본원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성격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예외 없이 지켜지고 있는 근친상간 금지의 직접적 결과라고 했다.

즉, 친족 구조는 단적으로 근친상간을 금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인류가 무의식적으로 근친상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과의 결혼 풍습이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밍 구합니다.



443-759-9798



정성웅 보험



생명 보험은 단순 비교 만으로는
각 보험사의 특징과 저렴한 보험료를
찾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저희가,
5개 보험회사의 7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중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시도록 비교해 드립니다!

Male (Preferred Best)		\$500,000		
	30세	40세	50세	60세
10 yr.	\$12.67	\$17.31	\$39.52	\$108.50
20 yr.	\$18.16	\$28.04	\$69.00	\$199.53

Female (Preferred Best)		\$500,000		
	30세	40세	50세	60세
10 yr.	\$10.56	\$15.14	\$32.49	\$72.14
20 yr.	\$15.63	\$23.79	\$54.14	\$139.62

Male (Preferred Best)		\$500,000		
	30세	40세	50세	60세
10 yr.	\$16.05	\$21.54	\$49.84	\$127.62
20 yr.	\$23.23	\$34.64	\$82.62	\$224.37

Female (Preferred Best)		\$500,000		
	30세	40세	50세	60세
10 yr.	\$13.34	\$19.40	\$41.64	\$91.69
20 yr.	\$18.16	\$28.73	\$64.11	\$160.22

*상기 보험료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경제적 안전망입니다.

지금 연락 주세요!

정성웅 생명 보험

알려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영어안내 목소리가 나오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직원과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항상 전화 주셔서 감사 드리며, 더욱 친절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 딱 좋은 보험을 찾아 드리는



정성웅 보험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체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부동산 가이드



준리

콜드웰뱅커 베스트 부동산

주택 판매 작년대비 14% 증가 새로운 기회·긍정적 변화 예상

2026년의 부동산 시장은 정체기를 지나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부동산협회(NAR)에 따르면, 2026년의 주택 판매량이 전년도 2025년도 보다 14%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이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에 기반하고 있다.

먼저, 낮은 모기지 금리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NAR의 수석 경제학자인 로렌스 윤은 모기지 금리가 6%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

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25년도 초, 평균 7%였던 수치에서 1% 이상 하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리 인하는 수 많은 잠재 구매자들에게 주택 구매의 문을 열어줄 것이며, 약 550만 명의 신규 구매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로, 주택 공급 증가 역시 한몫 할 것이다. 현재 주택 시장은 공급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가격 상승의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

지만 시장이 개선됨에 따라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NAR 역시 주택 재고의 증가가 이러한 판매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중간 가격대의 주택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구매 가능성의 개선도 판매량 증가에 기여할 중요한 요소이다. 단순히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들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

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과 더욱 맞아떨어진다면, 이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 패턴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남부 및 중서부 지역으로의 이주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판매량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새로운 거주자를 유치하는 지역에서는 강한 구매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전반적인 시장 회복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맞물려, NAR은 2026년 주택 판매량이 전년

대비 14%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부동산협회(NAR)와 캘리포니아부동산협회(CAR)의 전망을 참고하여 내년을 예상하고 준비하기 바란다.

우리는 매년 그랬듯이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항상 주목하고, 앞서가며 바이어와 셀러의 확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바이어와 셀러들이 걱정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 인 모두가 2026년에 더 많은 기회와 행복이 가득하기 기원한다.

부동산 이야기



애니윤

콜드웰뱅커 베스트부동산

부채 35조 달러 시대, 부동산 투자 전략 재편 장기 보유 관점에서 안정성·수익성 재고해야

국내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 선 상황은 단순한 위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 되고 있다. 거시경제가 빠르게 재편되는 시기에는 자산별 가치와 투자 방향이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투자자에게는 더 큰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먼저 장기 금리의 변동성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처럼 보일 수 있으나, 투자자에게는 우량 자산을 합리적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수 심리가 주춤해지며 경쟁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양질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도 한다. 특히 멀티페밀리나 싱글페밀리 렌탈(SFR)처럼 임대 수요가 강한 자산은 금리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안정적 포트폴리오 구성에 유리하다.

또한 운영비 상승 흐름 속에서도 임대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지역에서는 렌트비 상승을 통한 수익성 개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국

내 주요 대도시에서는 고용 성장과 인구 유입이 이어지며 임대 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은 경기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구조적 강점이 갖고 있다.

지역별 시장의 차별화 역시 투자자에게 긍정적이다. 공급이 제한된 캘리포니아 남부, 텍사스 주요 도시, 동부 일부 고성장 지역은 지속적인 수요 덕분에 장기적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안정적인 시장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러한 지역은 고용 창출과 산업 성장 기반이 튼튼해, 향후 수익성과 자산 가치의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 투자자에게 환율 역시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환율 환경에서는 미국 자산을 매입할 때 부담이 있지만, 장기 보유 시 환차익을 포함한 이중 수익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특히 미국 부동산은 글로벌 기준에서도 안정성이 높은 자산군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환율과 자산 가치 상승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드문 투자처다.

현재와 같은 금리 환경에서는 경쟁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선별적 투자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투자자는 장기 성장성이 높은 입지, 견고한

임대 수요,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형성한다. 단기 시장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국가 부채 확대는 단순한 위험 시그널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자에게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는 변화의 지점이다. 금리·환율·수요 구조·지역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면, 지금과 같은 시장 환경은 오히려 우량 자산을 확보하고 장기적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로 작용한다.

미래 가치가 분명한 자산에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에게는, 이번 변화가 중요한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다.

풀 도너번의 마켓 나우

체감 물가와 분노의 정치학



체감은 소득 인식과도 맞물린다. 실질 소득이 늘고 있더라도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는 더 빠르게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많은 이들은 임금 인상을

'더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아들인다. 실제로는 물가 상승을 보전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결과 '예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면서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불만과 분노가 누적된다.

비교는 체감을 증폭시킨다. 소셜미디어는 '이 정도 생활은 당연히 가능해야 한다'는 기대와 '저 정도는 나도 누리고 싶다'는 욕망을 동시에 자극한다. 인플루언서들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고분노는 정치로 향한다.

미국에서 '생활비 부담 위기'가 정책의 중심 변수로 부상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4분의 3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끼며, 정부의 물가 대응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한다.

이런 압박 속에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는 새로운 형태의 양적완화(QE)를 실험하고, 신용카드 금리 상한 도입과 식료품 가격 안정을 위한 관세 조정도 논의 중이다.

생활비 부담 위기는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물가 수준'이 아니라 '물가에 대한 체감'의 문제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추천 투례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Ellicott City
\$70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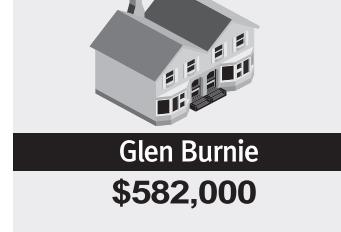
Silver Spring

화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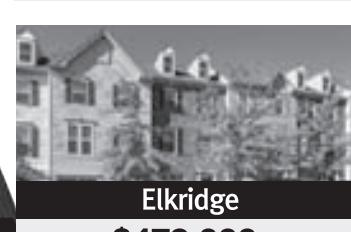
Laurel

방3, 화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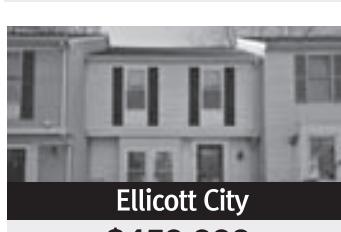


Glen Burn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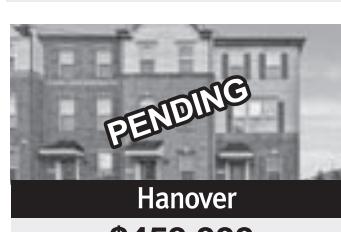
\$582,000

Elkridge
\$479,000

방3, 화2.5, 차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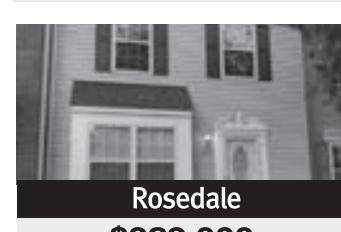
Ellicott City
\$450,000

방3, 화3.5



Hanover

방2, 화2.5, 차고1

Rosedale
\$329,000

방4, 화3.5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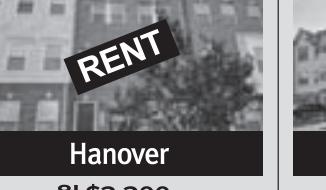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Potomac

월 \$4,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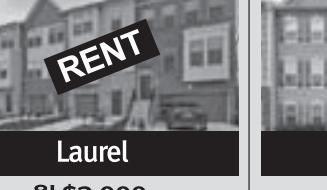
싱글홈



Hanover

월 \$3,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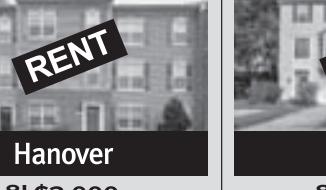
타운홈



Laurel

월 \$3,000

타운홈



Hanover

월 \$3,000

타운홈



Severn

월 \$2,700

타운홈



Columbia

월 \$2,600

타운홈

**집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한방에 속 시원히 답해드립니다.
집 이쁘게 수리하여 팔아드립니다.**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에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매물



페어팩스 타운홈
2005년생, 방4, 화3.5, 차고 2,
집전체 마루, 교통과 학군이 우수하며
높은 부동산 가치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핵심입지 조건, 코스코 부근

\$850,000

매물



챈틸리 타운홈
2005년생, 방3, 화2.5, 차고 2,
3레벨 모두 범프아웃되어 동네에서
큰 타운홈이며 지은지 11년된
비교적 새 타운홈

\$700,000

매물



센터빌 타운홈
1995년생, 방3+ 화3.5,
1250sqft

\$530,000

매물



센터빌 타운홈
방3, 화2.5, 차고 2,
지은지 11년된 비교적
새 타운홈

\$700,000

**메릴랜드, 디씨 임대 주택 면허,
주택검사 대행해 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 귀중한 재산을 보호해 드립니다.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20년 연속 다이아몬드클럽 맴버
메릴랜드 주택 납 성분 검사 인스펙터**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홍민·강인·민재, IFFHS '2025 AFC 올해의 팀'

AFC 베스트 11 선정
일본 선수가 5명 최다

손흥민(LAFC)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국제축구연맹(IFFHS)이 선정한 2025년 아시아 축구선수 베스트11로 뽑혔다.

IFFHS는 26일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포함한 '2025년 아시아 축구연맹(AFC) 올해의 남자팀'을 선정해 발표했다.

IFFHS는 세계 베스트11 격인 '월드팀'뿐만 아니라 대륙별로도 한 해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로 올해의 팀을 꾸려 공개하고 있다.

'2025년 AFC 남자팀'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뽑았다.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에 자리했다. 이강인은 왼쪽 미드필더, 김민재는 수비수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2020년부터 6년 연속 AFC 올해의 팀에 선정됐다.

김민재도 2022년부터 4년 연속 뽑혔고, 이강인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아시아 베스트11로 우뚝 섰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AFC 팀에 뽑혔던 황희찬(울버햄프턴)이 빠지면서 우리나라 선수는 3명으로 줄었다.

일본이 가장 많은 5명을 배출했다. 측면 공격수 구보 다케후사(레알 소시에다드)를 비롯해 미드필더 사노 가이슈(마인츠)와 도안 리쓰(프랑크푸르트), 수비수 하타테 레오(셀틱),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파르마 칼초)이 한자리 씩 뛰쳤다.

여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수 살렘 알다우사리와 미드필더 모하메드 칸노(이상 알힐랄), 우즈베키스탄의 수비수 압둘코디르 쿠사노프(맨체스터 시티)가 포함됐다.



리디아 고·티띠꾼 등 5명
WTGL 스크린골프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이번 주 '왕중왕전'으로 2026시즌 막을 올린다.

29일부터 나흘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골프 & 컨트리클럽(파72·6624야드)에서 2026시즌 개막전인 힐튼 그랜드 배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210만달러)가 열린다.

힐튼 그랜드 배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는 지난 2년간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다.

한국 선수로는 2019년 지은희가 초대 챔피언에 올랐고, 지난해엔 김아림이 우승을 차지해 올해 대회에서 타이틀 방어전에 나선다.

올해 대회에 디펜딩 챔피언 김아림을 필두로 총 39명이 출전해 2026시즌 첫 트로피를 놓고 다투다. 한국 선수는 김아림 외에 유혜란, 양희영, 임진희, 이소미, 황유민이 참가한다. 특히 '돌격 대장' 황유민(사진)은 LPGA 투어 신인으로 첫 대회에 나선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며 미국 무대 진출을 준비하던 황유민은 지난해 10월 미국 하와이주에서 열린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월리파잉(Q) 시리즈를 거치지 않고 LPGA 투어에 직행했다.

여타 신인이라면 '최근 2년 우승자' 만나설 수 있는 대회에서 데뷔전을 치르기 쉽지 않으나 황유민은 우승한 덕에 LPGA 투어에 입성과 동시에 첫선을 보이게 됐다.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2026시즌 LPGA 투어에서는 5개 메이저 대회를 포함해 31개의 정규 대회가 펼쳐지며, 미국과 유럽의 대항전인 솔하임컵, 이벤트 대회인 그랜드 손턴 인비테이셔널을 포함하면 총 33개의 대회가 열린다. 총상금은 1억 3200만달러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알카라스 vs 츠베레프, 호주오픈 단식 4강 맞대결

여자 단식 4강전은
사발렌카와 스비톨리나

카를로스 알카라스(1위·스페인)가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1억 1150만 호주달러·약 7800만달러) 남자 단식 4강에 처음 진출했다.

알카라스는 26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10일째 남자 단식 준준결승에서 흄 코트의 앤리크스 디미노어(6위·호주)를 3-0(7-5 6-2 6-1)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알카라스는 호주오픈에서는 처음 4강에 올랐다. 알카라스는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호주오픈에서만 우승 경력이 없다. 작년까지 그의 호주오픈 최고 성적은 2024년과 2025년 8강이었다.

알카라스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다.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남자 단식 커리어 그랜드 슬램은 앤드리 애거시(1999년·미국), 로저 페더러(2009년·스위스), 라파엘 나달(2010년·스페인), 노박조코비치(2016년·세르비아)까지 4명만 달성한 기록이다.

2003년생인 알카라스가 올해 호주오픈을 제패하면 최연소 커리어 그랜드 슬램(22세 8개월)가 된다. 앞서 남자 단식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4명 중 최연소는 나달의 24세 3개월이다.

알카라스의 4강 상대는 알렉산더 츠베레프(3위·독일)다.

츠베레프는 앞서 열린 경기에서 러너 티엔(29위·미국)을 3-1(6-3 6-7(5-7) 6-1 7-6(7-3))로 물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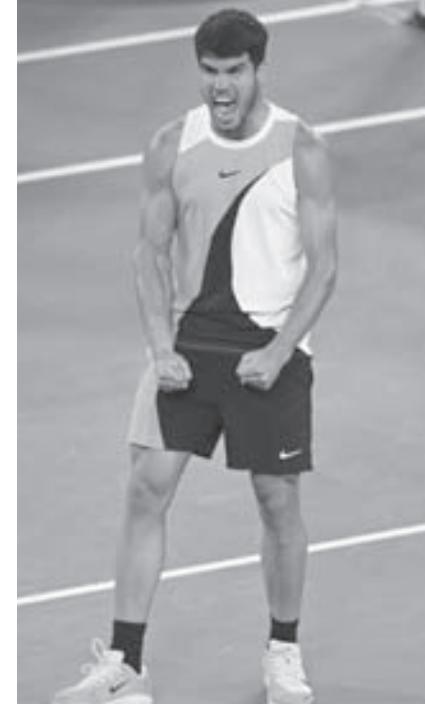
2021년 도쿄 올림픽 단식 금메달리스트 츠베레프는 최근 3년 연속 호주오픈 4강에 진출했다.

2024년 4강, 지난해 준우승한 츠베레프는 2020년 US오픈, 2024년 프랑스 오픈 등 메이저 대회에서 준우승만 세 차례 했다.

알카라스와 츠베레프의 상대 전적은 6승 6패로 팽팽하다.

하드코트 대결만 따지면 오히려 츠베레프가 5승 3패로 앞선다. 다만 최근 맞대결인 지난해 8월 하드코트 대회였던 신시내티오픈에서는 알카라스가 2-0(6-4 6-3)으로 이겼다.

여자 단식 세계 1위 아리나 사발렌카(벨라루스)도 4강에 진출했다. 사



호주오픈 테니스에서 스페인의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8강전 승리 후 기뻐하고 있다.

[제이미 조이·로이터]

발렌카는 이바 요비치(27위·미국)를 2-0(6-3 6-0)으로 완파하고 엘리나스 비톨리나(12위·우크라이나)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비톨리나는 이어 열린 경기에서 코코 고프(3위·미국)를 불과 59분 만에 2-0(6-1 6-2)으로 가볍게 따돌렸다.

[예드워스 TPX·로이터]

사발렌카는 2023년, 2024년에 이어 호주오픈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스비톨리나는 호주오픈에서 처음 4강에 올랐다.

둘의 상대 전적은 사발렌카가 최근 4연승을 거두며 5승 1패 우위를 보인다.

중앙일보

구독 문의

703.281.9660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광고비는 쓰는데, 매출은 그대로인가요?"

구글에서 안 보이면,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 구글 검색 & 지도에서 고객이 먼저 찾게 만들고
- 광고비 낭비 없이 실제 문의와 방문으로 연결하고
- 매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듭니다.

intelisystems
Think eMarketing

"2주 안에 새고객과 매출 향상을 경험을 하세요!"



구글 지도 랭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소셜미디어, 유튜브 광고, 온라인 쇼핑몰,
www.intelisystems.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ed: Susan do you have anything planned for Saturday?
 테드: 수전 토요일에 무슨 계획 있어?
 Susan: I'm kind of busy. Why do you ask?
 수전: 조금 바빠. 그건 왜 묻는데?
 Ted: I was wondering if you'd like to catch a movie.
 테드: 영화 보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서.
 Susan: I'd love to but I'm really going to be tied up on Saturday.

수전: 보고는 싶은데 토요일에 너무 바빠서 꼴찌 못해.
 Ted: What about Saturday night?
 테드: 토요일 밤엔 어때?
 Susan: I will be able to if I can handle all the work my parents are making me do.
 수전: 부모님이 시킨 일 다 하면 가능하지.
 Ted: When will you know?
 테드: 그걸 언제쯤 알 수 있어?

not have the faintest idea; 전혀 모른다

(Ted and Susan are talking on the telephone...)

(테드와 수전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

"I caught a very good movie last night."
 (어젯밤에 아주 좋은 영화를 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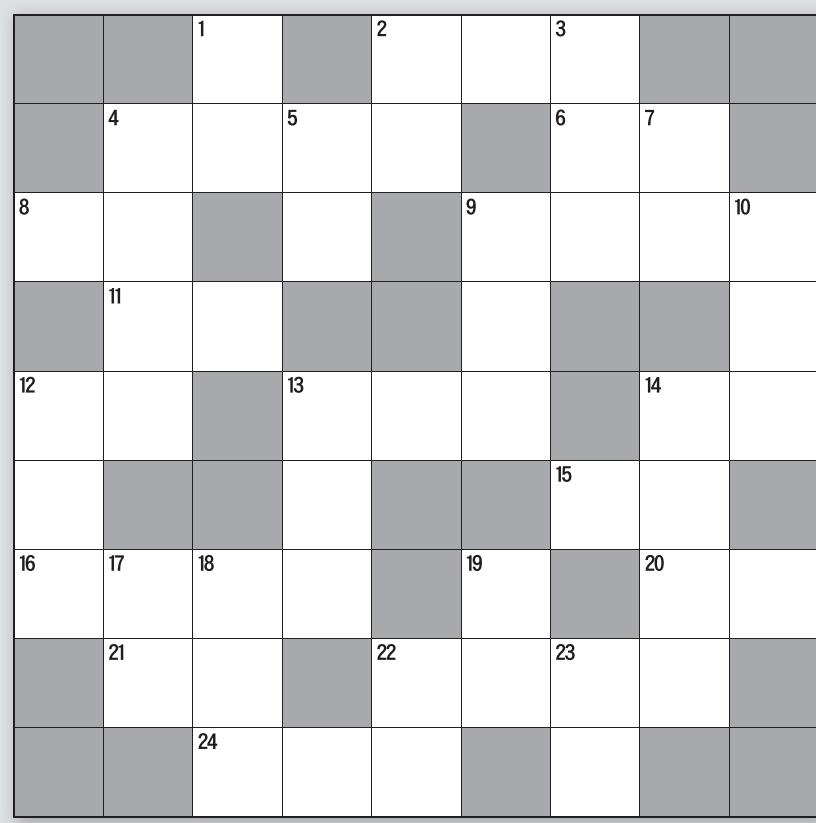
*(one) is tied up: 너무 바빠서 꼴찌 못하다.

"I'm tied up at the moment."
 (지금은 너무 바빠 꼴찌 못해.)

*handle (something): 처리하다. 다루다.

"I appreciate the way you handled the problem with your secretary." (네가 비서와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정말 좋았어.)

낱말퀴즈



가로열쇠

(2)눌러서 굳히지 아니한 두부 (4)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큰일을 이룸 (6)콩을 삶아서 짱은 다음, 덩이를 지어서 띠워 말린 것, 간장, 된장, 고추장 따위를 담그는 원료로 쓴다 (8)소금을 만들기 위하여 바닷물을 끌어 들어 논처럼 만든 곳 (9)교묘한 말과 그럴듯한 행동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는 짓. 자기 한 평생 부자로 살면서 귀하고 영화로우려고 일본 사람들한테 쓸개까지 떼어다 주며 ~를 끌어 대는 사람들 (11)병을 고치려고 병과 싸움. 그는 오랜 ~ 생활을 극복하고 재기하였다 (12)달을 위성으로 가지며, 자전주기는 약 24시간, 공전 주기는 약 365일이다. 나이는 약 46억 년 (13)드나드는 문을 지키는 사람 (14)산이나 들의 짐승을 잡는 일 (15)하얗게 선 머리털 (16)염치가 없고 뻔뻔스러운 남자. 돈 빌려 갈 줄만 알고 갚을 줄 모르는 그런 ~은 상대를 말아야 한다 (20)전화로 말을 주고받음 (21)자동차가 다니는 넓은 길 (22)재앙과 복록은 문이 없음. 사람이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함께 따라서 각기 받는다는 말 (24)육지와 섬을 이어 주는 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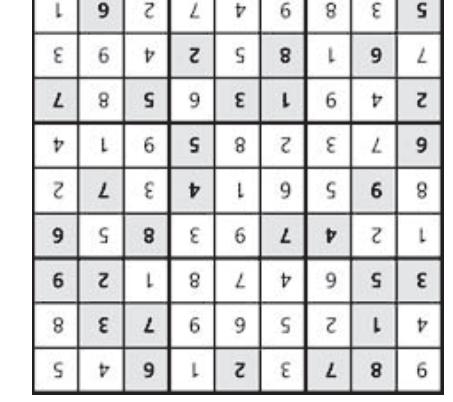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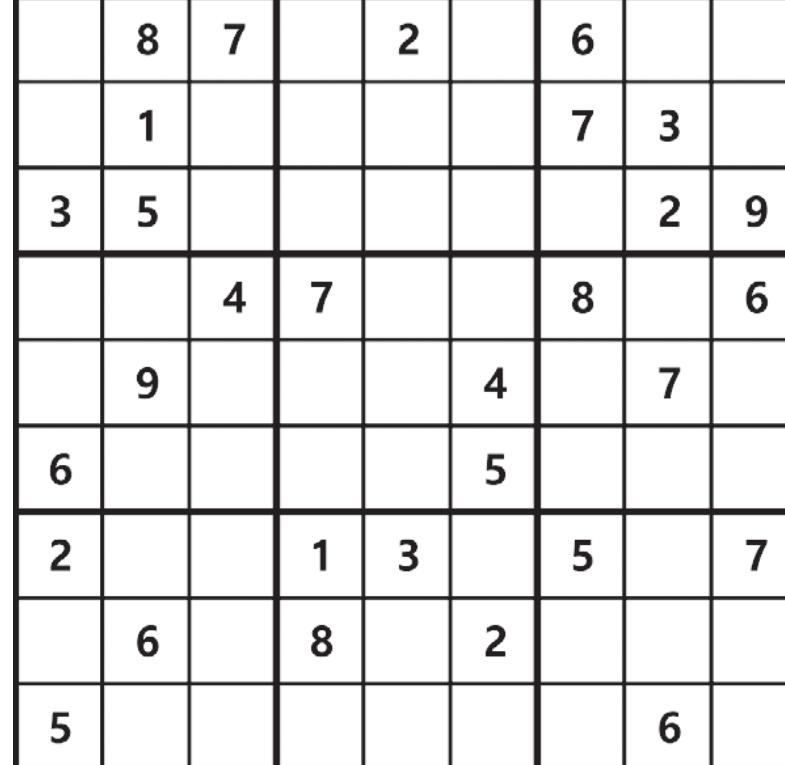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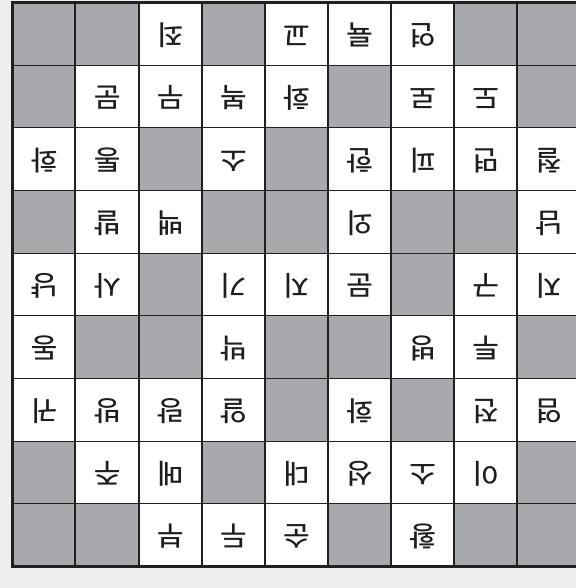
세로열쇠

(1)큰 수소. 황은 누렇다는 뜻이 아니라 크다라는 뜻이죠. 이종섭의 타월한 표현력을 담아낸 대표작에 ~가 있다 (2)돼지의 창자 속에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만들죠 (3)던지면 회전하면서 날아가고 목표물에 맞지 아니하면 되돌아온다 (4)진흙탕에서 싸우는 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치열하게 다툼 (5)올립픽 따위의 규모가 큰 체육 경기장에 켜 놓는 횃불 (7)음식을 만들거나 차리는 방 (9)재개발 예정지역의 중요한 지점의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 (10)남들이 하는 말 따위를 얻어들어서 앓. 나는 ~으로 그 명창의 판소리를 악하게 되었다 (12)쇠를 끌어당기는 자리를 띤 물체. 자석 (13)어떤 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 그들이 산삼이라고 가져온 것들은 ~의 눈으로도 가짜처럼 보였다 (14)주모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원을 중심으로 참가자의 이름을 빙 둘러가며 적은 통지문 (17)수염을 깎음 (18)결혼이나 출생 따위의 기쁜 일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베푸는 연회 (19)하얗게 차려입은 옷 (22)외국에서 사는 중국 사람 (23)죄가 없음

스도쿠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2주 \$20, 월 \$3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Eng)	한글(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_____ EXP. DATE: _____ / _____ CVS: _____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sign): _____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jglconstruction.com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센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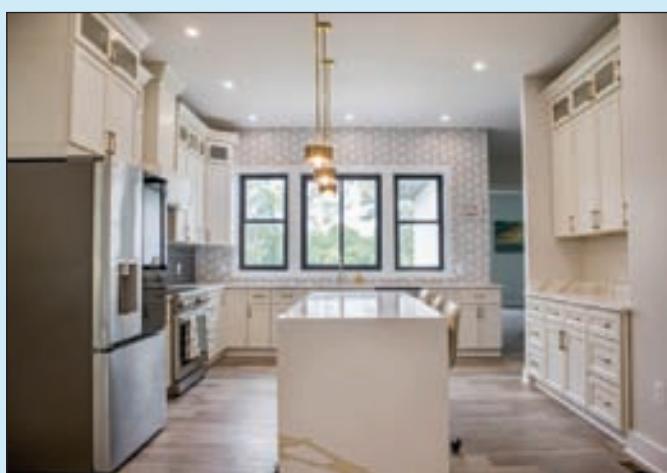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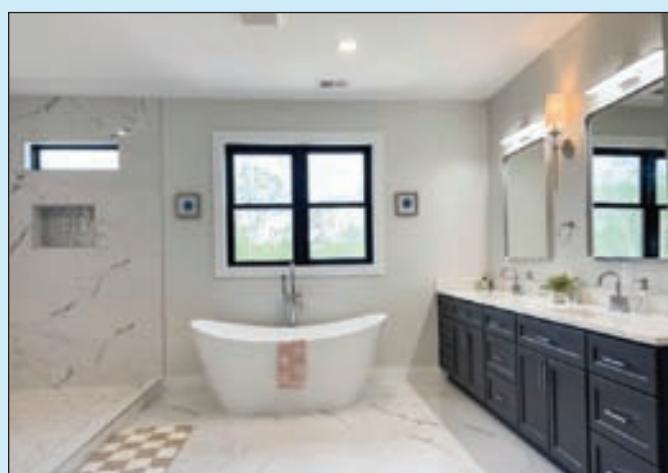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카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카VA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달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년데일 703-354-1515
2층 오픈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스페셜 SALE

부모님이 좋아하실 선물은 역시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디자인 OK 성능도 OK 기쁨 더~더욱 OK

단 하나의 하이엔드 헬스케어 로봇

NEW **파라오 Q**

HIGH-TECH ROBOTICS TECHNOLOGY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Bang & Olufsen 음향기술업체 고급 천연가죽시트
10인치 터치 테블릿 리모컨 XD-PRO 마사지 모듈 척추 라이 마사지

신제품 입고 기념 20~25% OFF

크기는 줄이고 기술은 완벽하게

콤팩트한 헬스케어 로봇, **팔콘SV**

작은 공간에도 문제없이 콤팩트하게!

* 헬스케어 로봇의 더욱 다이내믹한 마사지감!
* 천연가죽 사용으로 강해진 내구성!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월넷 우드 패턴' 디자인!

풀무원 김치 냉장고 런칭 기념 세일!

내 공간에 딱 맞는 김치냉장고
바쁜여행을 담는 바쁜 솔루션

풀무원 김치냉장고 120L PULMUONE KIMCHI FRIDGE 120L

SPECIAL OFFER \$1,399 → \$999

간편마다 맛있게 풀무원 인버터 블링시스템
김치냉장고 내부는 김치·정육·생선·과일·음료·음식 등 다양한 음식을 넣을 수 있는
"김치·정육·생선·과일·음료·음식" 6가지 맞춤 보관 모드
김치에 따라 다양하게 6가지 맞춤 보관 모드

스팀보이 카본 온수매트

SPECIAL OFFER 싱글 \$340 → \$300

STEAMBOY

오래된 안마의자를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특가 세일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판매로 속시원히 할인해 드립니다.

Osaki PRO 4D MAESTRO LE Osaki PRO 4D EMPEROR
뉴 프리미엄 4D 안마의자
건강마을 파격 할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전자매트 시장점율 1위 차지

일월 개화몽 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일월매트의 자부심 안전한 잠자리

흙표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원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황토세라믹불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원천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흙표흙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던 자정 대리점

월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1 자연 그대로 정상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채맞춤 방식으로 제작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하노기 원목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리운 산림욕 효과
5 3중 고온 안전처리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텀 기능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돌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tax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절친리 판매중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1 타월한 발열 시스템 3 간단 편리한 작동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4 우수한 안전성
건식 반신욕기로
건강을 채우고 피톤치드를 푸세요~

1월

구

인

광

고

함께 성장할 회사 임원(Director)을 찾습니다.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사업을 펼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임원(Director)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과 베네핏을 함께 나눌 비전과 열정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편리한 시간에 미팅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을 환영합니다

- 미래를 준비하며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일을 찾는 분
-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분
- 역량에 따라 무한한 수의 창출이 가능한 기회를 원하시는 분
-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 성실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
-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분
- 나이, 성별, 이중언어 여부 무관
-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가능자는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 본인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애난데일, VA (P & A USA Inc)

mydexa21@gmail.com / 571-668-0805 (문자요망)

바른 기사만 담겠습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wp., #310, Annandale, VA 22003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 Fairfax 인근 공원과 숲 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 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구인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会社

571-239-6054

구인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금매

Korean BBQ
& Hot Pot
케이터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매매

확실한 순익보장 데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을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 (텍스트)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데디케어

전문기 · 정선판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 & 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 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색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장·일보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메릴랜드 봉고메리몰 시계 및 쥬얼리샵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학생 환영
301-365-7794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 301-468-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경
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
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
쉬)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 합니다. 이력서는 LaurenKim@gmail.com
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 모집
업무: 주방 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 모집: 운전 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세탁/이미용/기타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스시용 밥기계(일본제품) 6,000불
2. 육구 버너 350불

3. 튀김(덴뿌라) 기계 300불
4. 그릴스 몰 300불
5. 큰 버너 200불
571-501-4780 (문자요망)

95년형 벤츠 300, 18만마일, \$3,000
703-966-9597

강아지 분양합니다. 순종 품산개, 1월 중순
703-868-6114

2018년 포드 트렌짓 250, 인슬레이션된
클러 밴,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كت시티,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업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글렌버니 리커스토어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유경험자, 파티임
443-262-1813

DC-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티임(6am-2pm) \$18/hr + tips
703-785-8763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드
리겠습니다.
703-869-5919

PG 카운터 리퀴스토어 라리스탁 하실 분
2-9pm 일하실 분 구함(금, 토 포함)
301-336-2500

손사이딩 울드하우스 메캐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세지 주세요)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홀 서버 일하실
분 구합니다.
▶443-420-3096

영어 가능한 딜리 매니저 구합니다.
DCSW(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심홍. 나이, 학력, 경력, 성
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싱글/타운 방 렌트

포토 맥 싱글 험 렌트 \$4,000
방 3, 화 2
▶301-399-0140

메릴랜드 엘리콧시티에서 15분 거리
큰 싱글지하 전체 렌트, 간이 주방, 큰
거실, 큰 욕실, 주차 가능, 유포 \$1,200
703-231-5572

엘리콧시티 롯데 5분거리, 밝고 깨끗한 싱글
하우스 워크 아웃 지하 렌트
방 2, 욕실, 취사 가능
443-630-2322

조용/교통 편리한 위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
로 근처 싱글 험 방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 험 2층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 분 \$7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 험 방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 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 험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사업체 매매

메릴랜드 솔로몬 아일랜드안에 위치한
한식당 매매합니다. \$300,000
최적의 위치, 좋은 수익, 저렴한 렌트비
804-519-1918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 5일, 좋은 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파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에스 \$250,000
7,000sf/180석/연회 전문/굿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퀴라이센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7.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8. DC NW 잘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9.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10.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 MD
11. 쿵후티, Bakery 등 다수 리스팅 보유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험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델리샵(DC) \$150K
DC 내 위치, 장사 잘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애난데일에 위치한 보험회사에서 일하실
풀타임 사무직 직원 구함
Kmw122@gmail.com
703-750-2205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파트타임,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 703-309-7885

애난데일 험 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어우대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company.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company.com

버지니아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나. 이중 언어자 환영
▶703-259-5617

노인 의학 클리닉에서 남자 간호 보조원
(MA) 채용합니다.
▶240-232-5989

페어팩스에 위치한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
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까지 전문적으로 상담
해드리는 보험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급
구합니다. 생명보험 라이센스 소지자
703-939-2737

CarePeople Home Health RN 구함
이력서 : carepeopleinfo@gmail.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어 가능자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ANNANDALE, VA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험자도
환영. Benefit(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 편리 기능
Email :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
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
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
니다.

모바일 앱과 POS 업무에 관심 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 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십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 IRA 혜택 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 있으신 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cpa.com

보험 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 근무 가능하신 분
▶연락처 703-712-7089

Fairfax 풀/파티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자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 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센터빌, 챠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리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금구, 센터빌, 챠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티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 병원 Front Desk(레스룬/타이스슨)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 require 이중언어,
▶tysdentalcenter@gmail.com

닥터 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 골프에서 함께 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http://no1golflounge.com)

브래드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중앙일보

식당/식품

RT-1 콘티코 근처 편의점에서 신원 확실한 남자 경력자 구함. 문자 연락 요망.
443-618-7141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티임)
703-712-7417

애난데일 명품 게장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애난데일에 위치한 제과점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쉬어 풀타임(유/무 경험자)
제빵사 풀타임(유경험자)
703-625-8525

DC-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티임(6am-2pm) \$18/hr + tips
703-785-8763

우드브리지 캔티코 부대안에 있는 일식당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구합니다.
신분 확실하시고 영어 가능하신분
703-640-7488/443-978-0900

영어 가능한 멜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저 구합니다.
영어 필수, 경험자 페이 우대
703-628-9168 (문자)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톤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셔,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합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사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파티임
▶ 571-991-4172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바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바 구함.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얼터레이션

알링턴 DC 지역 세탁소에서 직원 구함
풀/파티임 카운터 보실분
풀/파티임 얼터레이션 하실분
571-455-3609

알렉산드리아 테일러샵에서 바느질 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티임 가능하신분
703-328-3064

자동차/정비/바디샵

풀스쳐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기타 구인

맥클린 한국 학교에서 교사 모집
어린이를 사랑하시는분
571-235-8997 / 703-505-5760

손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
703-944-8433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센터빌)
▶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애난데일 타운홈 렌트 \$3,400
방3, 화 3.5, 최신식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된 집, 화려하게 잘 꾸며 놓은 부엌과 화장실, 집 전체 나무 마루, 넓은 데크,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모델 하우스 보다 더 예쁜 집, 교통 편리, 즉시 입주

▶ 703-477-3114

1. 매나사스 타운 \$3,400
(2025년 12월 새집) 2,700 sq, 방4, 화3.5, 로프트(오피스), 2/4층 택, 차고 2, 모던 오픈 스타일 키친, 234/66/GMU 근처, 이노베이션 퍼포먼스를 인근, 교통 편리, 센터빌 10마일 2. 브리스토 타운 \$3,200

방4, 화3.5, 차고 2, 전부 마루, 모던 오픈스 타일 키친, Patriot High 최고 학군, 234/Sudly manor, near Costco
▶ 571-239-6054

1. 게이더스 버그 타운 \$3,300
방4, 화장실 2

2. 제섭 타운 \$2,800 방3, 화장실 3

3. 얼리 커시티 타운 \$2,750

방3, 화장실 2.2

4. 피파데나 타운 \$2,600

방3, 화장실 2/2

5. 풀리비아 싱글홈(반지하) \$1,500

방2, 화장실 2

▶ 301-318-4242 / 443-668-0453

스프링필드 타운홈 렌트 \$3,000

방2, 화2.2, 2 Assisted 주차,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

▶ 703-919-0472

1. 센터빌 타운홈 렌트 \$3,300

방3,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2. 센터빌 타운홈 렌트 \$3,500

방4,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3. 패어팩스 타운홈 렌트 \$3,600

방3, 화3.5, 주차 2, 2월초 입주

▶ 703-863-0321

매나사스 기차역 가까운 타운홈 \$2,900

방3, 화 2.5, 차고 2, 앤드 유니

▶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전체 렌트

방4 화3.5 \$3,200 or 일부 방3 화2.5

\$2,200

470-485-1875

센터빌 H 마트에서 10분 거리 타운홈

\$2,350 (유틸리티 별도)

방3, 화장실 1.5, 뉴리모델링, 개 고양이 가능

등, 단기 렌트 가능

571-345-6667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렌트 \$2,200

방2, 화2, Top Floor, 밝고 환한 콘도, 업데이트한 부엌(Granite Counter Tops, 고급 캐비넷, 고급 SS 주방 용구들)

넓은 리빙룸, 넓은 밸코니, 마트 근처, 집 전체 잘 관리된 예쁜 콘도

▶ 703-477-3114

비엔나 마트로 근처 콘도 렌트 \$2,700

방2, 화2, 차고 1, 수영장, 휴트니스 센터, 물값 포함

571-271-2457

알렉산드리아 콘도 렌트 \$1,750

방1, 화1, 주차 2, 모든 관리비 포함

▶ 703-863-0321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 1, 이노베이션 메트로 역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사이언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 요지

▶ 571-239-6054

방 렌트

스프링필드 싱글하우스 1층 큰방 렌트,

가족같이 지내실 여자분 환영

703-517-9108

로튼(스프링필드 근처) 주택가 렌트

넓은 1층 같은 워크 아웃 전체

방 3, 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주방, 유트리티 포함, 출입문 별도

571-488-5860

Fairfax/Burke 지역

노바, 조지메이슨, 버크 H 마트 10분 거리

인터넷, 취사, 유포, 여자분 환영 \$650

571-214-0188 (문자요망)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하우스

2층 옥실 딸린 큰방 렌트합니다.

571-970-8048

애난데일 시루앞 방 하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973-8123

애난데일 예촌앞 타운하우스 마스터 배드룸

또는 작은 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622-2033

센터빌 H 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방,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페어팩스 조지메이슨 & 노바 대학 근처 방 렌트,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703-472-2295

게인스빌 타운홈 베이스먼트 워크 아웃 방 하나 렌트합니다. 거실/화장실/세탁실/침실 주무실분

703-732-1246

챈들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렌트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애난데일 원룸 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등 갖추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H 마트 옆 밝고 조용한 콘도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 큰 싱글하우스 밝고 환한 콘도 렌트합니다. 방안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등 갖추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571-395-4380 / 703-965-2343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하우스 렌트, 간단한 취사, 가구 완비, 인터넷,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Backlick & Braddock이 만나는 곳) 조용한 싱글하우스 렌트, 워크 아웃, 간단한 취사, 교통 편리, 주차 넉넉, 남자분 환영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일보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2. 포토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치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 410-417-7080

메릴랜드 랜행 싱글홈 \$700,000
1991년, 방4, 화3.5, 치고 2, 지하을수리, 업
그레이드, 넓게 확장한 거실
▶ 703-863-0321 / 301-399-0140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홈 \$749,900
방3, 화3.5, 치고 2, 교통 편리
▶ 703-489-6926

우드브릿지 싱글홈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싱글홈
▶ 703-622-0312

센터빌 타운하우스 \$499,900
방2, 화3.5, 1,740sqft, 지하full bath, 워크
아웃, 브래더/28,66,29 교통요지, 2017 리
모델링
▶ 517-239-6054

1. 센터빌 타운홈 \$600,000
방3, 화2.5, 치고 1
2. 센터빌 타운하우스 \$700,000
방3, 화2.5, 치고 2
3.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화1
▶ 703-919-0472

알디 싱글하우스 \$869,000
방4, 화2.5, 치고 2, 전체 마루, 굿 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 517-239-6054

엘리컷 시티 싱글홈 \$749,000
방4, 화3.5, 치고 2
▶ 301-318-4242/443-668-0453

1.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 2+2, 치고 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2.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 화장실 3+1, 치고 2
13년 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홈,
3. 엘리컷 시티 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치고 2, 밝고 이쁘게 잘 꾸며
진 집, 넓은 뒷뜰
▶ 410-417-7080

1. 덤로밍 메트로 앞 콘도 \$46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 마루
2. 맥클린 콘도 \$389,000
방2, 화2, 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alleria 옆
▶ 517-239-6054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 sqft, 방5, 화5.5,
치고 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
실,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
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야외 리
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 517-239-6054

사업체 매매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 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1. 주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파킹
2. 주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 전문/굿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워 라이센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7.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8. DC NW 잘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9.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10.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 MD
11. 궁후티, Bakery 등 다수 리스팅 보유
▶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샌드위치 샵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 703-928-5990

델리샵 (DC) \$150K
DC 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 703-625-9909

중고 매매 / 기타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소시용 밥기계(일본제품) 6,000불

2. 육구 버너 350불

3. 트립(덴뿌라) 기계 300불

4. 스몰 그릴 300불

5. 큰 버너 200불

571-501-4780 (문자요망)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피아노 렌스 합니다.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강아지 분양합니다. 순종 풍산개, 1월 충순

703-868-6114

2018년 포드 트렌짓 250, 인솔레이션된
쿨러 밴, 치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티,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염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 드리

겠습니다.

703-869-5919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날씨,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 useb3.com

문의 이메일 : admin@eb3recruit.com

전화 : 571-546-8683

색소폰, 클라리넷, 헤론, 트럼펫, 트럼본, 플루

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렌스

757-338-8496

건축/페인트/마루

손 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
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데크, 팬스, 지붕
제니얼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 571-213-8678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 703-835-0945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 일체

▶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 (In, Out), 데크, 인더너스 와 클리

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

체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 모든 공사, 주

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 240-687-5155

보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메디케어에 많

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안전한 미

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지금 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번의 접경이, 내일의 차이를 만듭니다.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

드립니다.

▶ 703-598-3316

온미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보험

▶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보험

▶ 703-862-5395

조은혜 종합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 자동차 / 주

택 / 사업체 보험

▶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 관리

▶ 703-895-7648

제인 최용자 25년 경력 매입 / 재융자 / 특수

▶ 703-244-3453

マイ클 장용자 주택 / 상업용자 / 재정 상담

▶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 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 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냉 · 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설치

AWARDED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한 A/S·기술력파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데크, 캐비넷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 미용 타투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법양해운

귀국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태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법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화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기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법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93-2093 051-469-4191 310-767-50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귀국 이사 전문

신용 저렴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귀국이삿짐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타주이사

100% 자체보험으로

해외이사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시내이사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수아 미용 타투

SERVICE LIST

- 두피 염색 (가르마, 정수리 전체)
- 눈썹, 아이라인, 입술
- 속눈썹/헤어 생장술
- MTS (미백, 주름개선 세럼)
- 스킨케어



443-722-592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 톡

소독

JD Star Pest Control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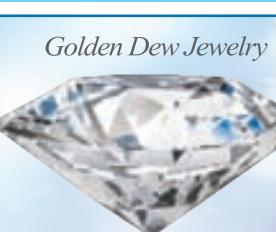
Class - A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세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긍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ot City, MD 21043
엘리ott시티 롯데플라자 내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응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테아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설 분, 경매)

Hyundai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핫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넥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 위성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Construction Inc.
jglconstruction.com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쌠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 • 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야기 돌반자,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C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룰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팎 물새는 것

24Hr
703.499.5984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홈스 플러밍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씽크 / 디스포져
- ◆ 워터히터 / 물새는 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셀프펌프 교체

571.594.4080
VA 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 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틴트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룰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703.600.9031

“모바일 앱으로 손님 폰에 세일 광고 및 마케팅 문구 전송, 무제한, 무료”



매출이
달라집니다!

- 멀티매장 + 창고관리
- 간편한 재고관리
- 고객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
- 모바일 앱을 통해 손님폰으로 세일 전송
- 기존 POS 시스템에서 재고 데이터 이전 가능
- 인터넷이 끊겨도 작동하는 오프라인 모드
- 100,000개 이상의 뷰티 아이템 데이터 내장
- 매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가능

“모바일 앱 세일 광고 품목,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구매, 결제 가능”

“세일즈 에이전트 모집중!!
문의: hr@worldbankcard.net”



WBS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WWW.WORLDBANKCARD.COM
WWW.IMIDUS.APP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IBERTY UNIVERSITY & MIT**

(Meridian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세계 최초 카드 프로세싱 · Fintech · IT 창업 전문대학

① 카드 프로세싱 전문가 과정 (Fintech & IT Training)

- 전문 과정 수강료: \$5,000
- 카드 단말기·POS·온라인 결제 교육
- 교육 후 개인 카드 프로세싱 전문가 자격 취득
- 실습 과정 + 현장 배치 지원
- 안정적 수입



② 소액 창업자 & 투자자반

- 카드 프로세싱 회사 운영 기회 제공
- 창업 투자자금 약 \$50,000부터 가능
- 본사 지원으로 독립 지점 개설 가능
- 세계적인 결제 시스템 기업 제품 판매 및 서비스 기회
- 결제 시스템 + 마케팅·운영·고객 관리 교육 제공

③ 비자 연계 창업 프로그램 (E-2, EB-5 Visa)

- E-2 비자: \$150,000~\$300,000 투자
→ 투자비자 교육 프로그램 + 독립 지점 창업 지원
- EB-5 비자: Million Dollar 투자 프로그램 (영주권 연계)
→ EB-5 프로그램 교육 과정 포함
- 글로벌 투자 이민 건설행 회사와 투자 이민 전문 변호사 협력 지원 가능
- 합법적 미국 체류 +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기회 제공

④ 교육 + 창업 + 투자이민 원스톱 솔루션 제공

- Liberty Bankcard(MPS) & Liberty University 전문 지원
- 세계 1위 회사 (Worldpay.com) 서비스 제공하면서 안정된 고소득 창출하세요.

문의 (424)332-3779 미전지역 가능

info@meridianwish.com www.meridianwish.com
임학 설명회 및 ZOOM 미팅 예약번호: (424) 332-3779
9465 Wilshire Blvd., Suite 300 Beverly Hills, CA 90212

기타 지역

구인

스시맨 & 주방급구

알라스카, 숙식제공
성실하신분
(408)497-1540
메세지 남겨주세요
언락드리겠습니다.

중식쉐프 & 스시맨

알라스카, 취업결정사유없는분
숙식제공(858)337-0982

이민생활의 나침판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문의 213.368.2525



매월 2주마다 신축
9월
햇산삼
세일

미국 생활에 대한
고퀄리티 리얼정보와
미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All about US Life!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홀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550
· 40년 1파운드 \$1,500→\$950
· 50년 1파운드 \$2,350→\$1,500

Kim's Acupuncture Clini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213)407-4524

치질·출혈 수술 안하고 OK

항문풀림·변비·요실금 출출
작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간편합니다.

동배·뱃살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미라클 터치 (213)675-6877

20년된 한식점 일식당금매

소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현대자동차 등 협력회사 많은 지역으로 트래픽이 많은 지역입니다.
몽골베리 알라바마지역 가 \$10만 (Nego 가능)

(334) 669-4474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자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COLDWELL BANKER E-mail: baksusa@yahoo.com



지긋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렐휘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나
실제 치료
사례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십시오!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832) 605-4890 • (281) 501-2623

2026 학년도

신입생 | 편입생 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시모집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 TEL: 213-272-6031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독점 Burke

싱글홈

방4, 화3½, 2 Car Garage,
집 전체 리모델링, 새 지붕, 새 HVAC 시스템,
새 창문, 새 DECK,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모든 화장실 업데이트

\$975,000



S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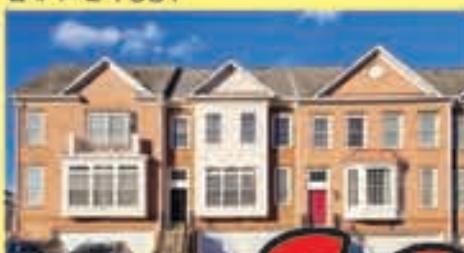
독점

Dumfries

타운홈

2005년 새단지, 2 Car Garage, 방3, 화3½,
Bay Window 2개, 편리한 탁트인 구조,
밝고 흰한 집, 새 페인트, 잘 관리된 집,
업데이트한 주방용구

\$469,900



Sold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방3, 화2½,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Stainless Steel Appliances,
새 페인트, 집 전체 리모델링,
교통 편리

\$510,000



Sold



독점

Springfield

타운홈

방3, 화3½, 1 Car Garage
집 전체 업그레이드, 엔드 유닛,
새 페인트, 새 Deck,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최근 에어컨 히팅, 지붕, Appliances 모두 교체

\$699,900



Contract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